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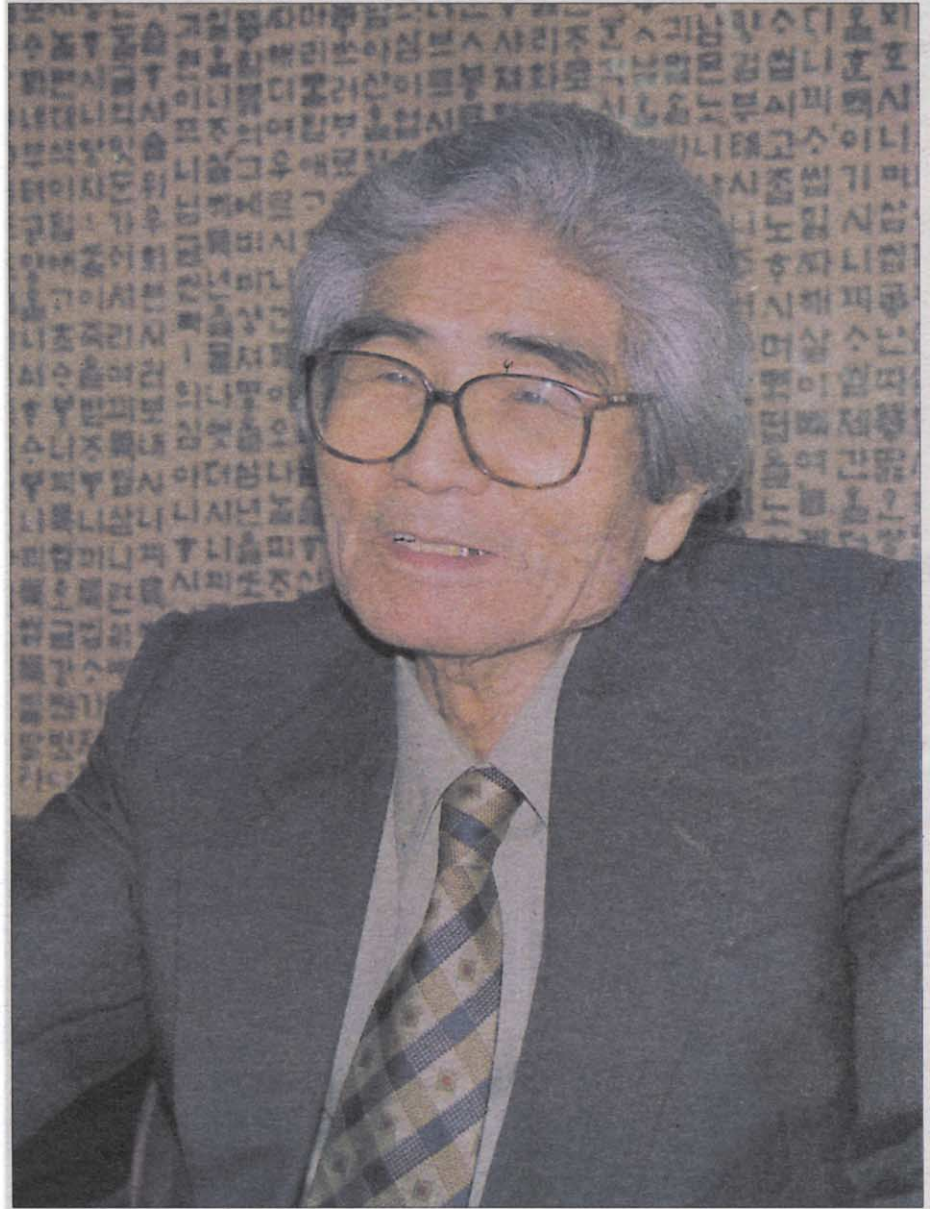
서울大同會報

2000년 1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7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지난 10월 16일 열린 모교 개교 제54주년 기념식에서 李姬鎬(左) 여사·許雄명교수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됐다. (커버스토리 14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축하합니다!

관상추추

『서울대학교는 수재를 신입생으로 뽑아서 보통인으로 졸업시킨다』
『서울대 출신들은 모래알이다. 문치면 강하고(죽고) 흩어지면 약해진다(죽는다)』는 말은 서울대인들의 사전에서 지워진지 오래다.

서울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자주 들게 되는 비아냥이다. 다분히 조소적이고 자괴 섞인 말이지만 아니라고 부인하고 수정해줄만한 현실적 근거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

입학철이면 서울대가 한국 최고의 명문대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전국의 수재, 영재들이 서울대의 교문으로 몰려든다. 그들은 높은 야망을 펼치기 위해 야무지게 설계도 한다. 합격생들의 공부 방식은 다음해 수험생들의 길잡이가 되고 미래 설계는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뿐, 대부분은 여느 대학생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렇게 4년을 흘려보낸다. 그들 수재들이

서울대인으로서 학문적 성취나 국가 자긍심 고양에 세계적 자취를 남겼다는 뒷소식을 들어보기 어렵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세계 우수 대학과의 비교수치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예산이 미미하다. 서울대의 총예산이 동경대의 7분의 1, 옥스퍼드대의 2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네소타대

개교 54주년의 자화상

에 비해서는 10분의 1에 그친다. 각종 기부금이나 기여금을 합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게 분명하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서울대가 21명으로 동경대의 9명, 옥스퍼드대의 9.6명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음을 짐작케 한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수는 서울대가 48권이나 동경대 296권, 옥스퍼드 593권으로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동경대의 5%에 머물 만큼 연구실적이 뒤쳐진 것은 자명한 이치다. 연구실적에서는 아시아 경쟁국 대학에 비해서도 불품없이 뒤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대학을 대표한다는 서울대학교의 현주소이다. 이것이 또한 수재를 보통인으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각 분야에서 서울대인이 직업인으로 무조건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서울대 졸업생을 기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따로 떼어놓으면 우수한데 집단생활이나 공동활동에는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까닭에서다.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가 개교 54돌을 맞았다. 선진국의 유명 대학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결코 적지 않은 연륜을 쌓았다. 적어도 그 나이만큼의 깊이와 넓이를 지녀야 마땅하다. 아직도 서울대는 우리 세대의 최고 지성의 산실이자 2위로 밀려날 수 없는 명문대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에 어울리는 자부가 없지 않지만 또 그 무거운 명예를 지켜가야 하는 과제가 지워져 있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입학할 때의 초심으로, 그 야망과 사명의식으로 내년 55주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銅)

디지털시대 흐름이 거세다. 온갖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변화와 속도, 이는 디지털시대의 속성이기도 하다.

집권자는 정보통신 혁명을 통해 나라의 새 틀을 짜기에 골몰한다. 경영자는 기업체 질 개선에 숨가쁘고, 산업의 무게중심은 빠른 속도로 옮겨간다. 교육도 정치문화도, 아니 거의 모든 이의 일상생활이 온통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거센 물결은 「아날로그 인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행동양식은 먼 옛날 낡은 문명의 흔적쯤으로 손가락질 당한다. 누구도 꿈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디지털신화는 거리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한다. 정보쓰레기와 불평등, 사이버범죄 등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은 이미 널리 현실화됐다. 의미 없는 정보의 홍수는 공해일 뿐이다. 정보력의 차이는 곧 경제력과 권력,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한결 지능적인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장르를 개척해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문명을 이끌어갈 동력은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다. 인류사 발전의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



高永才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과정은 직선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역사는 기나긴 정체 속에 순간적인 비약이 점철되는 불규칙적인 운동양식을 보여왔다. 비약의 순간들은 곧 인간의 비범한 독창성이 발현된 흔적이었다.

무릇 인류사의 물결을 바꾼 빛나는 발상은 「절대고독」의 산물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보포화 상태는 오히려 인간의 창조정신을 썩뜨는데 불리한 여건인 것이다. 빛의 속도를 닮은 정보유통의 속도는 생각할 겨를을 빼앗는다. 기나긴 고독과 고뇌 속에서만 인간의 창조성은 번갯불처럼 빛났었다.

디지털세계는 과학문명의 한계선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사이버세계는 인간 독창성이 빚어낸 극적인 성과이자, 그 창의성을 에너지로 삼는 문명이다. 인간의 창조정신을 갈아먹을 수 있다는 디지털시대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길은 있는가.

디지털세계의 비인간적인, 차가운 느낌도 걱정이다. 인간의 따스한 체온을 유지하며, 인간이 지닌 독창성을 키우는 일, 이는 디지털 시대 교육의 본질이자 생명이자, 세계적 대학을 꿈꾸는 서울대가 짊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가치갈등 속에서 알아야 할 원칙들

우리 사회가 또 지나친 분열과 대립으로, 국가 에너지를 결집해 나가는데 있어 총체적 무기력증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를 달리하는 정파, 집단간 극한 대립으로 사회가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 불신이 만연하고, 의료계의 장기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측면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전체를 도외시키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또다시 이 사회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오늘날 현역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은 이 나라의 소수 엘리트 집단이다. 약간의 예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 대부분은 그 성장과정에서 앞서가는 능력으로, 남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며 자라 이 사회의 영향력을 키운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 인재들이다. 재능을 인정받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길러진 인재들이면 그만큼 이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사회를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을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임을 충분히 암시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집단과 사람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들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며 얼마나 현명하게 집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이다.

가치갈등이 내재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한가지 중요한 원칙은 이런 것이다. 즉 국부적 이익이 전체의 이익을 앞설 수 없으며, 특수한 가치가 보편적 가치를 초월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간 가치갈등관계에서 일방의 완승과 상대방과의 완패를 겨냥한 해결은 추구될 수 없다.

총체적, 원론적 입장에서 절충과 타협으로 모두가 함께 받아드릴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서울대인이 누구보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郭柄善

(70년 師大卒)

한국교육개발원장



尹萬重



李以春



金鍾惠



金秉鎬



權寧喆

지부순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지부

국내 고속철 시대 개막의 일등공신

95년 창립, 동문 20여명 불철주야 임무 수행

글: 權寧喆(84년 工大卒·설계관리실 부장)총무

경부고속철도사업은 1992년 6월 착공하여 2004년 4월 우선개통(서울-대구 구간), 2010년 완전개통(서울-부산 구간)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률 50%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7년 6개월 만인 1999년 12월 16일 역사적인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99년 일본에 의해 처음으로 철도가 건설된 이래 우리 기술에 의해 진정한 철도공복, 철도독립을 이룩하였다고 자부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우리 나라가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기까지는 국민들의 지탄과 불신도 한 때는 있었지만, 고속철도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임직원, 특히 우리 동문들의 살신성인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이룩된 결과라고 자랑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 규모가 막대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있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가 많은 것은 결국 고속철도를 사랑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우리 공단에는 전체 살림을 꾸려가는 南政秀(71년 工大卒·감사)동문을 비롯해 李以春(71년 文理大卒·총무본부장), 李元求(73년 法大卒·홍보팀장), 金鍾憲(79년 工大卒·기전본부 부장), 金相泰(81년 工大卒·차량제작관리부장), 金秉鎬(82년 工大卒·설계관리실 국장)동문 등 모교 동문 21명이 여러 요직에서 경부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지부는 공단 창립 후 만 3년이 지난 1995년 5월, 당시 공단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李元求동문

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성되었다.

모든 일에는 과거를 밀거름으로 하게 마련이며, 현재와 같은 경부고속철도건설이 있기까지 있어, 지금은 공단을 떠났지만 이 사업에 크나큰 공헌을 한 동문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의 초대 이사장(92년 3월~93년 5월)으로 크게 활약한 故 金鍾球(62년 文理大卒)동문은 경부고속철도 세부노선 확정, 천안-대전간 시험선구간 노반공사 착공, 차량 도입을 위한 거름을 다졌으며, 2대 이사장(93년 5월~96년 3월)인 朴有光(66년 法大卒)동문은 서울-천안간 노반공사 착공, 각종 기술검증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했었다.

한편 4대 이사장으로 금년 6월에 퇴직한 柳常悅(64년 法大卒)동문은 TGV 시제차 제작 및 도입과 한국고속철도

(KTX) 시험운행개시 등 명실상부한 한국고속철도 시대를 연 주역이다.

지금은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들 한다.

60년대 이후 승용차, 버스, 항공교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위축됐던 철도교통이 20세기 후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류교통비 절감, 신속·정확한 수송, 안전성 등의 문제해결 수단에 있어 철도교통이 그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쳐 호남고속철도, 남북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건설 등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 기술로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동문들은 새로운 다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성해운 洪龍濤사장

“우리 가족 외국어 실력 수준급입니다” 아침마다 영어비디오 보며 자연스레 배워

해금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지점에는 높게 치솟은 절벽이 있다. 현대그룹이 첫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던 날, 국내·국외 방송사는 해금강을 돌아다니는 금강호를 촬영하던 중 바다가 내다보이는 이 절벽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한 가족을 포착한다. 특종(?)을 잡아낸 방송사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들은 바로 우성해운 사장인 洪龍濤(72년 商大卒) 동문 가족. 이곳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어장인만큼 故人이 된 부친을 위해 매년 이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성해운과 洪동문은 특별하게 맺어진 케이스로 『입사 당시 국내 해운회사들은 외국 차관의 상당 부분을 국제브로커를 통해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비리들이 많았으며, 저는 이러한 비리들을 캐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했던 것인데, 그만 우성해운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인연이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우성해운이 국내 3대 해운회사로 우뚝 서기까지는 洪동문의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특히 70

년대에는 우리 나라 선박들이 경쟁국인 홍콩, 대만, 일본에 비해 비싼 운임료를 내고 있었던 터라 아무리 수출을 늘려도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가 힘들었다. 그 당시 세계 해운시장을 좌지우지하던 해운동맹선사의 일원인 우성해운은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산다」는 모토를 내걸고 전례에 없던 동맹을 탈퇴했다. 동맹국들의 따가운 비난과 눈총에도 불구하고 洪동문은 그동안 꾸준히 쌓아놓은 신용도와 인맥을 통해 하주들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이들에게 합당한 운임료를 제시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내는데 성공, 국가의 운임안정을 가져오는데 크나큰 공헌을 했다.

洪동문은 학창시절을 회고하면서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로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시절엔 한번 과외를 가게 되면, 새벽녘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설 틈이 없었다고. 하지만 모교를 입학한 후 「서울대생」이라는 혜택(?)을 톡톡히 받아 큰 어려움 없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洪동문은 이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에도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그 중 하나가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영어비디오를 틀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조건을 만들어 준 것. 그 결과 洪동문의 뒤를 이어 경제학을 전공한 차녀 洪映(2000년 社會大卒) 동문은 현재 외국인 회사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McQuinsey 컨설팅사에서 새내기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올해 모교 법대 법학과를 입학한 막내딸 洪眞映은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주최로 열린 외국어경시대

회에서 총장상을 수상했을 만큼 외국어 실력이 수준급이다.

『德不孤 必有隣...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귀로, 사랑과 덕, 그리고 뜻을 지닌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이웃이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국가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 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생활관을 밝혔다.

한편 洪동문은 음악을 좋아하는 처남 朴珍雨(74년 工大卒·경북대 교수) 동문과 처자집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동서 李炳勳(79년 齒大卒·치과의원장) 동문에 대한 자랑도 아끼지 않았다. (表)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洪龍濤동문, 洪眞映, 洪映동문.

건강을 지킵시다

열성 경련시 기도 유지가 중요

朴浩珍(78년 醫大卒) 서울직업자병원 소아과장



소아기에는 뇌가 발달과정에 있어 해부학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경련이 발생하기 쉽다. 그 중에서도 열성경련은 어린이의 2~5% 정도가 겪을 만큼 흔하고 대개 3개월에서 만 5세 사이에 일어난다.

뇌염이나 뇌막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에 의한 질환은 열성경련이라 칭하지 않는다. 한편 열성경련의 원인은 아직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으며, 다만 이런 원인질환으로 중이염, 요로 감염, 홍역 같은 발진성 바이러스성 질환 등이 흔하다. 따라서 어른들이 『아이들은 어릴 때 열이 있으면 경기도 하면서 자라는 것이고, 커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소홀하게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열성경련이 뇌염이나 뇌막염 같은 심각한 중추신경계 감염의 첫 증상일 수도 있어, 적수액 검사 등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아야 한다.

열 경기를 안 한다는 다섯 살이 넘었는데도 경련을 했다고 혹시 간질이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드물게는 열 살이 다 된 큰 아이들도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이 안돼 열성경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상을 나타내는 수가 있다.

열성경련은 그 양상에 따라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이 있다. 복잡한 열성경련은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그 경련 양상이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어느 한 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

경련이 연속하여 생길 때를 말한다. 복잡열성경련의 경우 간질로 전환되거나 열성경련이 반복하여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항경련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한 조사에서는 열성경련 환자의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이들의 대다수가 경련발작시의 응급처치법을 알고 싶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경련발작시 손발을 주무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경련발작시에는 호흡이 일시 정지되므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를 모로 눕게 하거나 고개를 살짝 돌려 토물이 나올 경우, 이러한 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먼저 막아 질식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련은 대부분이 5분 이내에 저절로 멎으므로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드물게 15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이 때도 역시 호흡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락처 : 2002-8441)

추억의窓

정치학과 문학동우회 「政文會」결성 자유분방한 작품발표회 호응 높아

崔瑞泳(58년 文理大卒) 前코리아헤럴드 사장·한남대 초빙교수

지금은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1950년대 동숭동 대학로 거리 - 옛 문리대 앞길은 온 젊은이가 동경해 마지않던 아름다운 꿈의 거리였다. 그때 「대학의 대학」으로 불리었던 문리대 학생들은 봄이면 황금빛 개나리꽃이 만발했던 이 길을 걸어 커다란 마로니에 나무가 버티고 있는 교정을 들락거리면서 청춘의 꿈을 한껏 키우고 있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다 모여 들었던 정치학과에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라 할까, 금방 서로를 알아보고 조그마한 서클 하나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政文會」. 정치학과에 입학한 학생들로 문학동우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 등 문학의 길로 정진하겠다고 모여든 문과계의 많은 존재들에게는 심한 이단으로 비쳤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섰다. 「녹음의 오후」, 「이것은 노래가 아니다」 등의 좀 야릇한 표제를 달고 작품발표회를 연달아 열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까지 참관하러 오는 대성황이었다. 당시의 문리대 학풍은 암울했던 시대와는 정반대로 자유분방하면서도 고고한 이상을 쫓는 상아탑 바로 그것이었다. 君子不器라고 할까 高處大所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만끽하면서 살았다. 정치와 문

학을 융합(?)시켜보고자 했던 政文會 운동도 이런 학풍이 길러낸 하나의 산물이었다.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때를 회상해 보면 정말 그림고 보람있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거듭 든다. 시대물결에 밀려 대학이 한낱 직업훈련소 모양으로 변해가는 요즘 세대 속에서 젊은 날의 추억은 정말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때 그 시절의 이벤트였다.

우리 政文會는 해마다 가장 우수했던 작품에게 시상하던 대학신문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그 수준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盧在鳳, 金聖佑, 申東濤, 申貞休, 孫世一, 崔東鎮, 楊春遇, 宋復, 金瓚洛, 필자 등이 그때의 창립 멤버였다. 졸업 후 풍진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기 관계, 정계, 언론계, 학계 등으로 갈려 나갔지만 지금도 해마다 몇 번씩 만나 1950년대의 동숭동 옛 대학시절의 그때 그 세 계로 가끔 돌아가곤 한다.



1957년 5월 盧在鳳동문의 도미 유학 환송식에서, 맨 뒷줄 좌로부터 두 번째 필자.

개교 54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성황

3천5백여명 참석, 친목 등산대회 펼쳐



본회는 지난 10월 15일 모교 개교 5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3천5백여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홈커밍데이 겸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8시부터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점수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故 吉屋潤동문의 주옥같은 색소폰 연주곡이 담긴 CD를 기념품으로 받고 모교 재학생들의 인솔로 등반을 시작했다.

안양의 농생대 수목원 잔디밭에 도착하여 준비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시작된 1부 의식행사에서 그린웨이리운동연합 趙庚穆(61년 工大卒)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成憲慶(84년 農大卒)동문의 자제인 基秀(서래초등학교 5학년)군이 그린스카우트 선서를 했다.

金在淳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맑은 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흘러가고, 산은 천년을 두고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다』며 『모처럼 가을 내음을 한껏 마시면서 자연과의 깊은 대화의 기회를 갖고,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와

민족에 대한 무한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모교가 잘 되려면 동창회가 잘 되어야 한다』며 『새 천년을 맞아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에 참석한 동문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모교와 동창회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의 행사 경과보고에 이어 농생대 玄正悟(70년 農大卒)수목원장에게 나무이름패 제작비로 2백50만원을 전달했다.

蔡賢九(82년 師大卒)동문과 백나운(音大 성악과 3년)양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에서 모교 태권도 동아리가 연무 및 격과 시범을, OB 합창단이 멋진 하모니를 선보였다.

특히 의과대학, 치과대학, 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대학원, 신문대학원, 환경대학원, 수원지부, 언어학과, 지리교육과, 화학교육과, 법대 12회, 의대 14회, 상대 15회·18회, 구법산악

회, 농기동우회, 수의대 임상동문회 등에 소속된 동문들이 단체로 참석한 가운데 동문가족 전체가 참여해 림보게임, 단체 줄넘기, 박 터뜨리기, 포크 댄스 등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姬鎬(대통령 영부인)고문, 崔主鎬명예회장을 비롯해 2백90여명의 동문이 협찬해주었다. <협찬자 명단 6~7면 참조>

특히 매년 동문가족들의 관심을 모아온 경품추첨에 있어서 대우자동차와 본회가 공동으로 협찬한 자동차(마티즈Ⅱ)의 행운은 홍대부속여중 金太彦(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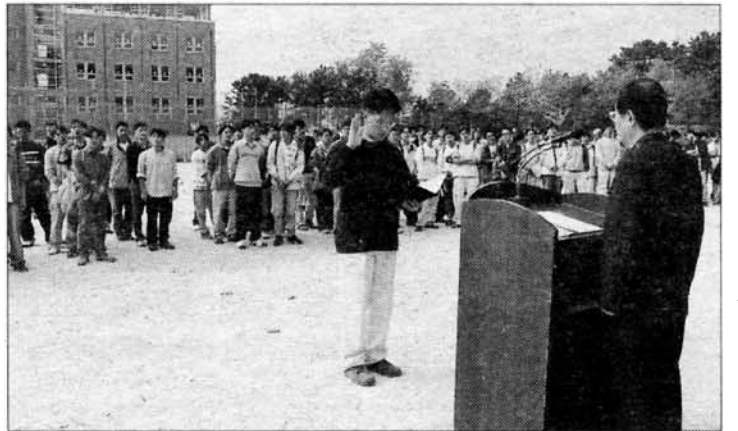
師大卒)교장의 부인 金閔嬪여사에게 돌아갔다.

또 대림산업 李堉鎔회장이 협찬한 오토바이와 롯데관광 金基炳회장이 협찬한 동남아여행권

은 부평문화재단 李道卿(63년 農大卒)이사장과 청담동물병원 李鍾雲(87년 獸醫大卒)원장이 각각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變)

제7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개막



지난 10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제7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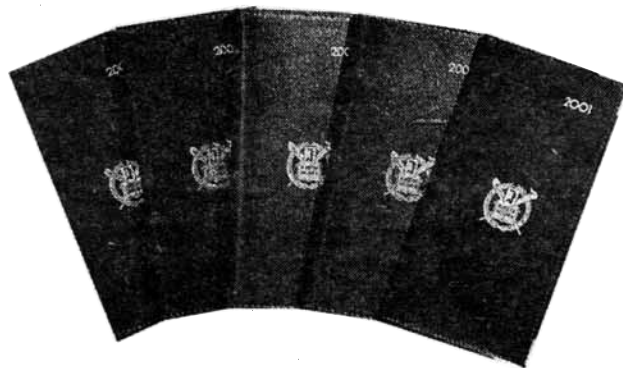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申仁湜대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 48개팀은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孫상임부회장은 金在淳회장을 대신한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화합, 평화, 발전의 새 천년을 이끌어갈 여러분에게 새로운 협동과 단결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도에 우승한 서울과 학교 출신팀 주장이 대표로 선서를 했으며, 孫상임부회장이 야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이날 참석한 48개팀은 4개조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태로 예선전을 치르며, 오는 11월 13일 결승전과 폐막식을 갖게 된다.

2001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2001년의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 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시상부문에 따라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협력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 1) 접수마감 : 2001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1년 3월 16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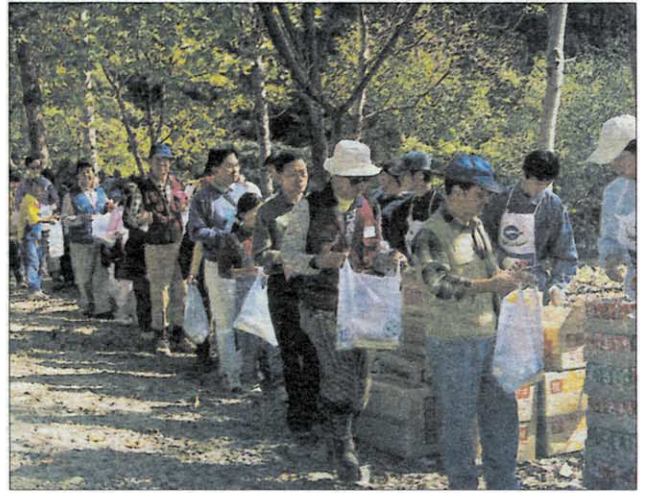
「서울대가족 친목 등산대회」 한마당



3천5백여명의 동문가족이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쳤다.



손에 손잡고 녹음이 드리워진 산길을 오르며.



등산을 마치고 줄지어 맛있는 점식과 음료를 받았다.



의식행사를 통해 그린스카우트 선서를 했다.



모교 태권도 동아리의 연무 및 격파 시범.



항상 기대되는 경품추첨 순서.



림보게임으로 부부 일심동체 과시.



모교 OB합창단의 멋진 하모니.



단체줄넘기를 해보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 가네요.

미술작품

劉仁洙作

◆작가약력◆

- 70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73년 대학원 졸업
- 80~2000년 개인전 9회,
아시아국제미술전
- 87~89년 프랑스 디종 국립미술학교 수학
- 89년 관훈미술관 개관 기념전
- 90년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 92년 서울 현대 판화 대전
- 95년 광복50주년기념 「동세대」전
- 96년 불교미술인 초대전
- 99년 서울시 미술대전
- 현재 미술대전 심사위원,
상명대 예체능대학장



「일상적 이미지 96-7」, Acrylic, 194×130cm, 1996.



자동차 경품에 당첨돼 기뻐하는 金太彦동문 부부.

玄在賢  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동양그룹 회장 가스오븐렌지 1대	宋恩善  71년 音大卒 (주)라르메 대표 휴대용 가방 30개	金泓殖  71년 經大院卒 (주)금복주 회장 소주 2천팩	李大榮  72년 商大卒 금강제화 대표 금강제화상품권 5매	李鍾基  73년 商大卒·冠岳會理事 상영무역 사장 일금 50만원	陳大濟  74년 工大卒 삼성전자 사장 김치냉장고 1대	元世勳  74년 法大卒 서울시 시의회 사무처장 어린이용 크레파스 및 물감 80개					
朴柱鐸  74년 商大卒·冠岳會監事 (주)수산스타 대표 일금 50만원	崔炳敏  75년 文理大卒 대한펍 사장 물티슈 1천개	金秉順  4기 최고경영자과정·冠岳會理事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20만원	姜聖模  17기 최고경영자과정 린나이코리아 회장 가스렌지 2대	鄭八道  1기 최고산업전략과정·冠岳會理事 (주)흥인 회장 일금 50만원	李淳鍾  5기 최고산업전략과정·AIP同窓會長 (주)한화 사장 일금 30만원	金相賢  27기 국가정책과정·ACAD同窓會長 前국회의원 일금 30만원					
朴英淑  3기 가장간호수습과정 CHCN同窓會長 일금 30만원	朴尙東  2기 보건의료정책과정·EHPM同窓會長 동서한방병원 원장 일금 30만원	본회·대우자동차 마티즈 1대	가정대학동창회 (회장 李義淑) 일금 50만원	간호대학동창회 (회장 楊銀淑) 일금 30만원	농과대학동창회 (회장 尹勤煥) 일금 50만원	상과대학동창회 (회장 高炳佑) 일금 50만원	약학대학동창회 (회장 李禮植) 일금 50만원	음악대학동창회 (회장 金正吉) 일금 30만원	대학원동창회 (회장 金圭植) 일금 30만원	수의과 임상동문회 (회장 李成煥) 일금 30만원	애완견 입양권 2대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張忠植 52년 師大入
李會昌 57년 法大卒
李漢東 58년 法大卒
申允植 59년 文理大卒
李昌遠 60년 法大卒
沈利澤 63년 工大卒
許永燮 64년 工大卒
尹永錫 64년 商大卒
李武龍 65년 法大卒
姜文昌 68년 商大卒
李龜澤 69년 工大卒
李潤雨 69년 工大卒
趙忠彙 70년 工大卒
金正泰 70년 商大卒
趙時永 2기 최고산업전략과정
(50만원)

金德洙 55년 工大卒
徐廷旭 57년 工大卒
高建 60년 文理大卒
金洪春 62년 法大卒
姜洛遠 65년 商大卒
林昌烈 66년 商大卒
梁萬基 68년 商大卒
朴容炫 68년 醫大卒
禹瑾敏 43기 최고경영자과정
(30만원)

宋仁相 35년 商大卒
徐柱成 47년 商大卒
權彝赫 47년 醫大卒
金周煥 47년 齒大卒
朴漢相 48년 文理大卒
鄭炳瓚 50년 工大卒
李錫允 50년 文理大卒
申冕雨 50년 醫大卒
安哲浩 52년 工大卒
朴權相 52년 文理大卒
趙完圭 52년 文理大卒
金甲現 49년 法大入
安台鎬 53년 商大卒
洪性五 54년 師大卒
金炯晉 55년 工大卒
河俊煥 55년 工大卒
申榮均 55년 齒大卒
文貞奎 56년 工大卒
申東秀 56년 工大卒

張明洙 56년 工大卒
尹鎬拆 56년 文理大卒
韓甲洙 56년 文理大卒
金在春 56년 法大卒
金泰卿 56년 法大卒
金範來 56년 獸醫大卒
閔靑泓 56년 藥大卒
金昌植 57년 工大卒
宋基德 57년 工大卒
鄭然世 57년 工大卒
咸承浩 57년 工大卒
申禹植 57년 文理大卒
尹鍾琳 57년 文理大卒
李大淳 57년 法大卒
朴重大 57년 商大卒
李祥根 57년 商大卒
李升雨 57년 商大卒
邊尙鉉 57년 醫大卒
片度權 58년 工大卒
李炳漸 58년 法大卒
李淳福 58년 法大卒
李康樞 58년 藥大卒
鄭東源 58년 藥大卒
金讚煜 59년 工大卒
韓守垠 59년 工大卒
韓徹鍾 59년 工大卒
玄喜憲 59년 工大卒
蔡永福 59년 文理大卒
金永均 59년 法大卒
池昌壽 59년 商大卒
孔大植 60년 工大卒
李承俊 60년 工大卒
黃海根 60년 工大卒
朴鍾五 60년 文理大卒
高宗鎭 60년 法大卒
林泰洙 60년 法大卒
許南珏 60년 商大卒
韓基燦 60년 獸醫大卒
金圭甲 61년 工大卒
金炯璧 61년 工大卒
南正鉉 61년 工大卒
柳時烈 61년 法大卒
蔡載億 61년 法大卒
禹完植 61년 商大卒
李洙彬 61년 商大卒
洪清一 61년 藥大卒
車有培 61년 行大院卒
李喆雨 62년 工大卒
朴相千 62년 法大卒
朴宗雨 62년 法大卒
姜奎錫 62년 師大卒

姜洙憲 62년 商大卒
李萬秀 62년 商大卒
李佐榮 62년 商大卒
李鍾大 63년 工大卒
趙昌杰 63년 工大卒
沈載德 63년 農大卒
林秀浩 63년 農大卒
趙秀衡 63년 農大卒
李鍾哲 63년 美大卒
鄭哲基 63년 師大卒
朴炳潤 63년 商大卒
申東赫 63년 商大卒
李揆成 63년 商大卒

劉常夫 64년 工大卒
李聖揆 64년 工大卒
金泳宗 64년 農大卒
金榮秀 64년 法大卒
金榮一 64년 法大卒
盧莊愚 64년 法大卒
邊在承 64년 法大卒
徐承完 64년 法大卒
宋哉憲 64년 法大卒
李大公 64년 法大卒
文炳學 64년 師大卒
李悌龍 64년 師大卒
高寅錫 64년 商大卒

權泰雄 64년 商大卒
裴昶模 64년 商大卒
沈載善 64년 商大卒
崔昌杰 64년 商大卒
鄭之碩 64년 藥大卒
閔季植 65년 工大卒
李元道 65년 工大卒
李梓旭 65년 工大卒
李禎久 65년 工大卒
李商龍 65년 農大卒
李哲雨 65년 農大卒
朴東勳 65년 文理大卒
梁圭模 65년 文理大卒
金孝成 65년 法大卒
金昌富 65년 商大卒
金泰淵 65년 商大卒
金恒德 65년 商大卒
李德鍾 65년 商大卒
李龍彦 65년 商大卒
權博 65년 藥大卒
金聖中 66년 工大卒
金永潤 66년 工大卒
成培永 66년 農大卒
金明子 66년 文理大卒
南宮堅 66년 文理大卒
朴建宇 66년 文理大卒
李正明 66년 文理大卒
金慶漢 66년 法大卒
申明均 66년 法大卒
鄭輝衛 66년 法大卒
沈勳 66년 商大卒
李祥義 66년 藥大卒
房極允 66년 行大院卒
林承根 67년 工大卒
鄭相求 67년 工大卒
李世作 67년 法大卒
李炳圭 67년 商大卒
崔光鉉 67년 商大卒
李燦河 67년 經大院卒
張夢仁 67년 經大院卒
趙武濟 67년 司大院卒
洪思德 68년 文理大卒
崔鉛熙 68년 法大卒
崔贊敬 68년 師大卒
金元吉 68년 商大卒
李淳學 68년 商大卒
姜學淳 69년 工大卒
朴勝彬 69년 工大卒
李秉宰 69년 經大院卒
南東益 70년 工大卒
宋志午 70년 工大卒

申權植 70년 工大卒
朴熙俊 70년 文理大卒
金鍾洙 70년 法大卒
金學元 70년 法大卒
李福永 66년 法大入
嚴洛鎔 71년 法大卒
金閔鍾 71년 藥大卒
吳鈺洙 72년 工大卒
徐相燮 72년 文理大卒
禹南均 72년 文理大卒
李仁濟 72년 法大卒
曹貞植 72년 法大卒
具滋弘 72년 商大卒
李泰鎔 72년 商大卒
魚聖俊 73년 工大卒
沈載權 69년 商大入
李正植 73년 商大卒
沈勇燮 74년 農大卒
朴柱宣 74년 法大卒
申洵雨 74년 行大院卒
趙王夏 75년 法大卒
文大源 75년 商大卒
李載哲 77년 法大卒
金河俊 77년 師大卒
李世熙 77년 齒大卒
池太星 79년 師大卒
任太熙 80년 經營大卒
朴喜宅 6기 최고경영자과정
黃慶老 11기 최고경영자과정
趙乃璧 31기 최고경영자과정
金澈運 33기 최고경영자과정
南錫祐 35기 최고경영자과정
李章漢 37기 최고경영자과정
鄭光勳 47기 최고경영자과정
具學書 49기 최고경영자과정
金西坤 11기 최고산업전략과정
ACAD 40기
朴龍鎬 48기 국가정책과정
曹建昌 49기 국가정책과정
한길건축
(20만원)

蔡始珠 56년 藥大卒
權義宅 60년 商大卒
李在煥 60년 商大卒
姜賢旭 61년 文理大卒
權奇成 79년 行大院卒
(10만원)
金忠環 77년 社會大卒
(5만원)

등산대회사

尊敬하는 同門 先後輩 여러분! 서울大人 가족 여러분!
母校 Campus를 지나 冠岳山을 넘어 오시는 氣分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淸明한 가을입니다. 文字 그대로 天高馬肥의 아름다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네 가을입니다.
孔子는 樂山樂水! 知者は 樂水하며, 仁者は 樂山한다 하였지요!
맑은 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흘러갑니다. 山은 千年을 두고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를 흐뜨리지 않습니다.
動과 靜! 모처럼의 登山길에 맑은 가을의 내음을 한껏 들어 마시면서 自然과의 깊은 對話의 機會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今年는 母校가 開校한 지 5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떨어졌던 同門들, 젊은 날의 友情을 되살려 浩然之氣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마음의 富者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들이 자랑하는 母校의 李基俊 總長과 많은 教授들도 오셨습니다.
또 모처럼의 모임에 Green-Scout를 대표해서 趙庚穆 副總長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 歡迎의 拍手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다시피 오늘을 위해서 友情어린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선물을 보내주시는 同門들에게도 큰 拍手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每年 이 行事를 始終 재미있게 이끌어 가는데 재치와 웃음을 선사해 주는 蔡賢九 同門과 音大 聲樂科 在學生 백나운 嬢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서울大人 - 家族 여러분!
서울大人으로서의 金지와 民族에 對한 無限責任을 되새기며 自信있게 堂堂하게 멋진 人生길을 걸어갑시다. 서울大人이여! 健勝하시라!

200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동정

수상

▲金元福(모교 음대 명예교수)

=지난 10월 20일 동송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천문화재단 이사장)=지난 11월 9일 힐튼호텔에서 도산인상위원회가 도산 안창호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5회 도산인상을 수상함.

▲安亨一(53년 音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0월 20일 동송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權純亨(55년 美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0월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全相運(56년 文理大卒·성신학원 이사장)=지난 11월 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사단법인 위암 장지연선생 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1회 위암 장지연상(한국학부문)을 수상함.

▲尹鍾赫(57년 文理大卒·홍익대 명예교수)=지난 10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국제문화예술협회가 수여하는 국제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패를 받음.

▲張永壽(59년 工大卒·대한건설협회장)=지난 10월 26일 라오스 정부로부터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최고 훈장인 국가개발 유공훈장을 받음.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교수)=지난 10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국제문화예술협회가 제정한 제1회 국제문화예술상(미술부문) 대상을 수상함.

▲高斗模(63년 商大卒·대상그룹 회장)=지난 10월 7일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제정한 제3회 전문경영인 대상(제조업부문)을 수상함.

▲權寧弼(65년 文理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0월

10일 제5회 월간미술대상 시상식에서 학술부문 대상을 수상함.

▲林煥澤(66년 文理大卒·성균관대 교수)=오는 11월 1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15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할 예정임.

▲金榮石(66년 商大卒·SK증권 부회장)=지난 9월 30일 서울대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인사조직학회 학술대회에서 「2000년 전문경영인상」을 받음.

▲張永洙(67년 文理大卒·KBS 정책기획실장)=최근 昭忠·四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9회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음.

▲洪在星(68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10월 19일 한글회관 강당에서 제22회 외술상(문화부문)을 받음.

▲俞重植(72년 法大卒·폴럼버스 사장)=지난 10월 10일 한국물류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한 「2000 물류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嚴基永(74년 文理大卒·MBC 보도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1월 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사단법인 위암 장지연선생 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1회 위암 장지연상(방송부문)을 수상함.

▲崔俊豪(77년 自然大卒·KAIST 교수)=지난 10월 12일 독심자가 제정한 제7회 목암생명과학상 M&C상을 수상함.

▲金泳相(83년 自然大卒·충남대 교수)=지난 10월 12일 독심자가 제정한 제7회 목암생명과학상 M&C상을 수상함.

▲金亨基(83년 師大卒·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지난 10월 20일 제49차 한국청년회의소(JC) 전국회원대회장에서 「2000년 한국청년 대상(신문·일반보도부문)」을 받음.

▲尹汀華(88년 社會大卒·휴먼아이브릿지 사장)=지난 9월 29일 2000년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총무로서 여성기업인들에게 투자기회를 부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공병우(97년 音大卒·모교 대학원생)=최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툴루즈 콩쿠르에서 성악부문 1위를 차지함.

▲俞相玉(39기 AMP·코리아나 화장품 회장)=지난 10월 6일 신라호텔에서 제10회 충청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을 받음.

이동·선임

▲金相廈(49년 文理大卒·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本會顧問)=지난 10월 5일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에 위촉됨.

▲愼平宰(57년 商大卒·교보증권 이사회의장)=지난 10월 24일 루마니아 명예영사로 임명돼 교보증권 여의도 본사 15층에서 명예영사 개관식을 가짐.

▲梁承圭(60년 法大卒·가톨릭대 대우교수)=지난 10월 17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柳錫基(61년 商大卒·케이بل TV 안양방송 사장)=지난 10월 5일 흥국생명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裴茂基(62년 商大卒·울산대 총장)=지난 10월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李容環(64년 工大卒·한국통신프리텔 사장)=지난 9월 26일 미국 마이에미에서 열린 「국제 전자상거래 민간기

구(GBDe) 컨퍼런스 2000」에서 임기 1년의 집행위원회 의장에 취임함.

▲李鍾大(64년 文理大卒·국민일보 사장)=지난 10월 9일 국민일보 상임고문에 위촉됐으며, 17일 대우자동차 회장에 선임됨.

▲李廷武(64년 法大卒·前건교부 장관)=지난 10월 7일 한국체육대 제3대 총장에 선출됨.

▲崔相泰(64년 法大卒·前한국일보 상무)=지난 10월 1일 서울경제신문 상임감사에 선임됨.

편집주간식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지난 10월 15일, 모교 개교 54주년을 기념하는 「Home Coming Day 겸 서울대 가족 등산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동문 가족은 물론, 물심양면에 걸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교측과 관계기관, 그리고 협찬동문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악자락 속에 불붙은 단풍보다 동기, 선후배, 사제, 친구들의 만남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모교를 함께 하는 동문수학의 끈끈한 우정과 사랑의 표출로 볼 때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할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을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尹鎭一(65년 法大卒·법무법인 우방 대표 변호사)=지난 9월 2일 대외경제통상대사에 임명됨.

▲鄭泰翼(65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지난 10월 15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장에 임명됨.

▲車培根(65년 師大卒·모교 교수)=지난 10월 14일 한국언론학회 가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회장에 선출됨.

▲金仁浩(66년 法大卒·前공정거래위원장)=지난 10월 9일 해외정보 제공업체인 와이즈인포넷 회장에 취임함.

▲劉赫根(66년 法大卒·前한국렌탈 사장)=지난 9월 29일 한국신용평가 대표이사에 선임됨.

▲鄭泰基(66년 法大卒·前신세기통신 사장)=지난 10월 10일 글로벌트레이딩 웹코리아 초대 사장에 선임됨.

▲尹桂燮(68년 商大卒·모교 경영대학장)=지난 10월 12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韓利憲(68년 商大卒·前국회의원)=지난 10월 6일 사단법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제4대 원장에 취임함.

▲姜福守(69년 法大卒·쌍용건설 전무)=지난 10월 11일 쌍용양회 구조조정본부장 겸 기획담당 부사장에 선임됨.

▲李起澤(69년 齒大卒·대한치과의사협회장)=지난 9월 29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 선임됨.

▲張炳起(70년 大學院卒·홍익대 교수)=지난 10월 5일 홍익대 제13대 총장에 선임됨.

▲白聖基(71년 工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9월 1일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소장에 임명됨.

▲李檀珩(71년 工大卒·LG-EDS 부사장)=지난 10월 17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에 선임됨.

▲李炳赫(71년 文理大卒·서울시립대 교수)=최근 서울시립대 교수협의회장(2000년 9월~2001년 8월)에 선임됨.

▲劉永祥(71년 商大卒·민주당 정책연구실장)=지난 9월 30일 특허청 차장에 임명됨.

▲申京煥(71년 大學院卒·중앙대 교수)=지난 9월 30일 대한안과학회 제12대 이사에 선출됨.

▲車美禮(72년 文理大卒·세계일보 문화부장)=지난 10월 15일 세계일보 논설위원에 선임됨.

▲金泰賢(73년 商大卒·민주당 정책연구실장)=지난 10월 17일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權京鉉(74년 商大卒·교보생명 부사장)=지난 10월 10일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朴時龍(75년 農大卒·서울경제신문 정경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0월 9일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에 선임됨.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장·국회의원)=지난 10월 7일 2002년 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됨.

▲金知文(76년 工大卒·코스모브리지 공동대표)=지난 9월 29일 큰사람컴퓨터 대표이사에 선임됨.

(9면에 계속)

(8면에 이어)

임됨.

▲李憲圭(77년 工大卒·과기부 원자력국장)=지난 10월 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에 임명됨.

▲朴仁錫(78년 美大卒·한샘 디자인연구소장)=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디자인컨설팅 회사인 이노디자인 부사장에 선임됨.

▲李幸源(82년 工大卒·대신정보통신 사장)=지난 10월 18일 대신생명 회장에 선임됨.

▲韓東洙(85년 環大院卒·코리아타임스 정치부장)=지난 10월 6일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에 선임됨.

▲金在哲(4기 AMP·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10월 15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무역센터 협회(WTCA) 정기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에 선임됨.

▲崔烈坤(6기 ACAD·前서울시 교육감·경기대 교수)=지난 10월 9일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大韓三樂會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에 선출됨.

▲都英心(23기 ACAD·前국회의원)=최근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장에 위촉됨.

행 사

▲李姬鎬(50년 師大卒·대통령 영부인·本會 顧問)=지난 10월 2일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해 국내 유일의 노인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해 서울대 차容眩병원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난 10월 10일~11월 1일 갤러리 우덕에서 「건축적 조각과 조각적 건축」 작품전을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0월 31일 하얏트호텔에서 산업자원부 辛國煥장관을 초청해 「무역·산업·에너지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가짐.

▲沈載甲(56년 法大卒·吉瑛義 선생기념사업회 회장)=오는 11월 25일 인천 제물포고교 춘추관에서 故 吉瑛義선생의 탄신 1백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傳記발간 헌정 및 동상(坐像) 제막식 등을 가질 예정임.

(연락처 : 032-764-3644, 032-

-764-1100)

▲禹光均(56년 齒大卒·前우치과원장)=지난 10월 21일 인천기계공고 강당에서 에세이집 「세월」 출판기념회를 가짐.

▲李龍兌(57년 文理大卒·두루넷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0월 27일자 아시아위크誌가 발표한 아시아의 「디지털 엘리트 25인」에 선정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문화재단 이사장·醫大同窓會長)=지난 9월 29일 경원대 국제회의실에서 독일 훔볼트대와 의학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10월 14일 인천 종합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심청효행상 시상식에서 여고생 3명에게 상패와 장학금을 지급함.

▲李仁子(59년 家政大卒·건국대 학장·한국 의류학회 회장)=지난 10월 14일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2000년도 한국의류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가짐.

▲田錫津(59년 美大卒·진부령 미술관장)=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진부령 미술관에서 개관 1주년기념 「한국 현대공예 30인전」을 개최함.

▲李璆教(59년 師大卒·한국방송통신대 총장·師大同窓會長)=지난 10월 19~20일 「가상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 6회 국제원격교육 워크숍을 가짐.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10월 6일 팔레스호텔에서 새천년 단미·보조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全泳杓(60년 文理大卒·신구대 교수·출판문화학회 회장)=지난 10월 12일 방일영문화재단이 수여하는 2000년 저술·출판 지원 대상자에 선정됨.

▲金芝烈(60년 美大卒·홍윌회 회장)=지난 10월 17~24일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모교 미대출신 여성작가 모임인 홍윌회의 22번째 회원전을 가짐.

▲鄭晳永(60년 美大卒·모교 교수)=지난 10월 6~20일 종로구 팔관동 갤러리 인에서 「永劫속

에서」를 주제로 제2회 개인전을 가짐.

▲金東伸(60년 獸醫大卒·전국국공립대학원장협회 회장)=지난 10월 12일 전남대 대학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학원장협회 정기총회에서 「글로벌 대학원 모델」을 주제로 발표함.

▲金炯璧(61년 工大卒·현대중공업 회장·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지난 10월 12~17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2000 한국건설기계전」을 가짐.

▲李惠星(62년 師大卒·한국청소년상담원장)=지난 10월 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함께 하는 아버지, 건강한 청소년」을 주제로 부모교육 활성화 추진대회를 가짐.

▲金錦姬(62년 音大卒·경원대 강사)=지난 10월 8일 영산아트홀에서 모차르트,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光元(63년 法大卒·국회의원)=지난 10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함.

▲南仲九(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0월 6~7일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 「인터넷시대의 시사매거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金建鎬(68년 工大卒·한국공항공단 이사장)=최근 순천향대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음.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지난 10월 9~10일 중국 농업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한·중 농업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으며, 18일 인도 자이퍼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농업경제학회에 참석해 「한국의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함.

▲林吉鎭(69년 工大卒·KDI 국제정책대학원장·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최근 미국 미시간주립대 한국학 연구회가 주관하는 「세계 한국 대상 시상식」에서 기조강연을 함.

▲李寧愛(70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9월 30일~10월 28일 마케도니아 비틀라에서 열린 제3회 「비틀라 국제 관화 트리엔날레-2000」 기간 중에 초대

사랑의 힘 보여온 서울大人



金世忠



權憲緒



金熙洙

최근 남모르게 꾸준히 불우이웃을 도와온 안동지부동창회 金世忠(76년 法大卒·안동지부 총무·변호사)·權憲緒(78년 社會大卒·변호사)·金熙洙(84년 法大卒·변호사)동문의 선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무료기숙사인 「함께 사는 집」과 불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 가출소녀들을 위한 「희망의 샘」, 영주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영주 사랑의 집」 등 4곳의 사회보호시설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 1992년 「함께 사는 집」 건축 당시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를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었다. <信>

개인전을 가짐.

▲全京秀(7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비교문화연구소장)=지난 10월 24일 모교 인류학 실습실에서 「미술작품을 통해서 본 라틴아메리카 지성인들의 문화적 자의식」을 주제로 제55회 비교문화연구소 집담회를 가짐.

▲金建熙(71년 美大卒·화가)=지난 10월 25~31일 서울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 백두산, 양귀비, 진달래 등을 소재로 개인전을 가짐.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장을 역임한 申金浩(73년 文理大卒)동문의 부인임.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 미디어총괄사장)=지난 10월 27일자 아시아위크誌가 발표한 아시아의 「디지털 엘리트 25인」에 선정됨.

▲朴沆律(74년 美大卒·화가)=지난 10월 14일~11월 3일 뉴욕 맨해튼 빌 하저스 갤러리에서 「명상 - 흔들리는 불꽃 너머로」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가짐.

▲方孝善(74년 音大卒·경산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10월 30일 LG아트센터에서 우크라이나 바이올리니스트 올레흐 크라이사와 함께 두오 콘서트를 가짐.

▲羅成淑(75년 美大卒·서울산업대 교수)=지난 10월 10~31일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아시안 라이브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인 「목판화 20년전」을 가짐.

▲李琺姬(84년 音大卒·前경원대 강사)=지난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 등으로 독주회를 가짐.

▲安景姬(81년 音大卒·국민대

강사)=지난 11월 5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바흐, 베토벤,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申圭坤(85년 音大卒·성악가)=지난 10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베르디 및 모차르트 오페라 외 한국가곡을 선보임.

▲鄭修安(94년 音大卒·경원대 강사)=지난 10월 2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플루트 독주회를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박명수(99년 農大卒)군·박정연 양=11월 18일 14시.
- *이헌대 군·신인경(96년 藥大卒)양=11월 25일 14시.
- *한경훈(93년 經營大卒)군·이현주 양=11월 26일 14시.
- *김윤호(92년 社會大卒)군·권인숙 양=12월 2일 14시.
- *김훈기(88년 自然大卒)군·박인경 양=12월 2일 15시 30분.
- *임웅택(00년 齒大卒)군·박지연 양=12월 9일 14시.
- *박찬영(95년 師大卒)군·윤선주 양=12월 9일 15시 30분.
- *이광철(99년 師大卒)군·이문희 양=12월 10일 13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을 이용하시는 신랑·신부에게는 사이판 또는 제주도 호텔 무료숙박권을 드립니다.

한국병원 韓斗鎮원장



한국과학문화재단 全義進이사장

보호자 필요없는 '노인병 센터' 개설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고통받게 된다. 누군가는 환자를 수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라면 간병인을 따로 두고 치료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개 식구들이 돌아가며 환자를 살펴야 한다. 더구나 환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심한 경우 가족 중 일부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의료현실을 감안해 보호자 없이 노인병 환자를 전문 간호인력만으로 24시간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한국병원.

韓斗鎮(56년 醫大卒·本會 副會長)원장이 지난 2월 15일 「노인병 센터」를 개설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간호인력 24시간 배치 대소변 수발까지 척척

노인병 센터는 고령화 사회,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만성질환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노인병 및 말기 암 환자로 대체의학(식이요법, 관장요법 등)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장거리 여행, 명절 등)로 가족들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특히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1백50병상을 가동중인 한국병원은 그중 30개 병상을 노인병 센터로 개설, 내과의 4명, 수련의 5명, 전문 간호인력 6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환자 간호는 물론 세면, 목욕, 대소변 수발, 침상정리 등 환자를 위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쇄회로 TV와 무선호출시스템을 갖추어 항상 응급진료가 가능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 등의 관리 역시 의료진 및 간병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韓원장은 「현재 일반병실에도 간병인을 두고 있는 환자가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센터내에는 6명의 간병인이 교대근무를 해서 한 달에 1백50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에 대한 극진한 간병이 미풍양속으로 전해내려 온 한국적 상황에서,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가정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약환자를 제외한 10월 24일 현재 노인병 센터의 입원환자는 10명으로 이곳을 보호자의 면회 시간을 출·퇴근 전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韓원장은 「당장은 병원에 적지 않은 부담이 돼서 노인 환자에 한해서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의 수지상태를 보아가며 규모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韓원장은 고려대·인제대 의대 외과교수, 아시아병원연맹 회장, 국제병원연맹 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용산고 장학기금재단 이사장과 숙명여대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최승자여사와 2녀1남을 두었으며 韓正鎮(54년 法大卒·변호사)동문, 韓厚鎮(61년 法大卒)동문과 형제지간이다. (한국병원 노인병 센터 : 763-1463~7)

과학 대중화에 공직경험 접목시켜

서울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는데 그 존재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 위탁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복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우수과학도서 인증, SBS 「호기심 천국」 「카이스트」 등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과학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또한 과학의 모든 것을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한국과학문화종합정보망(www.scienceall.com)도 운영



민간단체 지원에 총력 체험 공간 확충할 터

하고 있다.

「기존의 집행기능 중심에서 연구기획, 종합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해 현재 활동중인 과학독서아카데미, 우리과학알리기운동본부, 장영실연구회 등 50여개 민간단체들과 과학문화 NGO 등을 통합, 지원하는데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지난 9월 2일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全義進(69년 工大卒)이사장은 「20년 가까이 과학기술계에 몸담아 온 경험을 현장에 접목시켜 과학 대중화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全이사장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과학기술의 효용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우리 나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재단의 장기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문화 창달은 국가적 필요

에 의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해온 주체인 과학문화재단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재단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목표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재교육기회 등이 이루어져야 우리 재단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全이사장은 「과학기술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화정보 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대한민국 과학축전 등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과학기술방송 등 과학기술문화 매체를 신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하노버대에서 금속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全이사장은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장, 과학기술처 연구기획조정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조예경여사와 1남1녀를 두었다. (한국과학문화재단 : 559-3800) (變)

롯데호텔에서 만납니다

모이자!

商大人을 主賓으로 모십니다.

내가 商大人이면 그대도 商大人!
定期總會 및 商大人 送年の 밤

出演確定

뽀빠이 李相龍 司會者

이래도 안오실렵니까!!!

1. 2000년 12월 5일(火) 午後 6時 30분부터
 2. 小公洞 롯데호텔 2層 크리스탈 볼룸
 3. Dinner Party 形式
 4. 各期別 Group 座席 配置
 5. CD-ROM TITLE의 電子傭少
- ※會費는 ₩30,000 티켓제로 各期別 幹事에게 問議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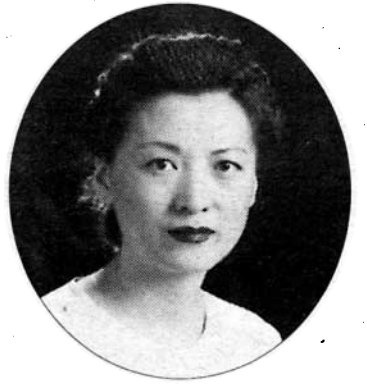
傳統과 和合의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總同窓會

☎761-2278, 761-7172



과학과 문화의식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

白善愛(86년 美大卒)현대건설 인터넷팀 과장



가끔 회사내의 직장 민방위대 훈련 모습을 보게 된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양복 입은 신사들이 우중충한 카키색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면 낯선 사람이 되어 집단 속으로 사라지곤 한다. 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 웃옷을 밖으로 내어 입은 사람,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어깨에는 총을, 한 손에는 담배를 물고 허벅지 밑에 있는 모습은 엉악없는 불량배(?)의 모습이다. 남자들 말에 의하면 군복을 입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치고 단정하고 깔끔한 매무새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기도 하다.

비단 남자들뿐이겠는가. 몇 년 전 나도 회사 근무복을 입었던 적이 있다. 근무복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전문가로서의 사교와 행동을, 그리고 나를 대하는 외부 손님들조차 담당자로서가 아닌 여사무원으로 상대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
과학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그와
발맞출 수 있는
문화적 진보가 아쉽다
”

제복이 갖는 의미는 참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복을 입음으로써 생기는 익명의 자유로움... 때로는 그 자유로움이 지나쳐 방종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는 일이 아닐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 발달에 따른 부정적 측면 가운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익명성의 황포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회사에서 인터넷 업무를 담당하는 나로서는 「익명의 글」이 접수될 때 제일 곤혹스럽다. 익명의 글은 대부분 항의성 메일이며, 표현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많다. 익명의 항의자는 마치 교양 있는 글로는 회사측에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듯 온갖 욕설과 빈정거림으로 가득 채운다. 그런 글에는 또 다른 답글이 붙고, 그럴 때의 답글 또한 기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나도 불편해!」, 「나, 너희 사장」과 같은 익명의 항의자는 이런 원색적인 표현 때문에 다른 게시자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선 여전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어느 초등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어른들의 축소판형 게시판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험을 느낀 학교 운영자는 그 게시판을 폐쇄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럼으로써 손해를 본 것은 게시판을 이용했던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었으며, 그들은 올바른 통신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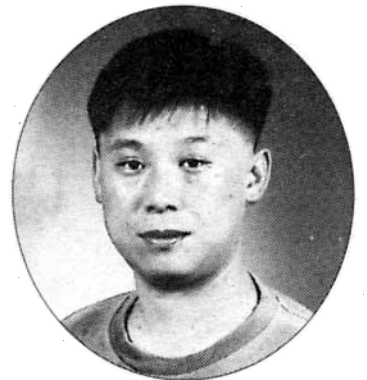
대학시절 서양미술사 수업 도중 교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나라가 왜 교통지옥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서양미술사 수업에 무슨 교통지옥?」하면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었다. 교수님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우리 나라는 마차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마시대에서 급작스럽게 자동차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차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혼란 중 가장 큰 것이 성숙한 문화의식이 아닐까. 과학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그와 발맞출 수 있는 문화적 진보가 아쉬워진다.

우리가 원하는 「靑年」의 의미란 무엇인가

金善雄(91년 社會大卒)제일기획 광고6팀 차장



사람은 한 평생을 살면서 유년기와 청년기, 장년기와 노년기의 자연스런 과정을 겪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보다 긴 청년기를 바라고, 물리적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으로 살고 싶어한다. 우리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많은 유명인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청년의 기개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과연 그렇다면 이 청년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청년이기를 원하게 하는 것일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경험이 이에 대한 작은 답을 주는 것 같다.

나는 광고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다르지만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광고 만드는 일에 대해 매력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에 대한 매력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 하나는 매체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바로바로 확인되는 광고 그 자체에 대한 매력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직업적 매력인 것 같다.

그 어느 것이든 분명한 것은 광고질이라는 것이 매우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사실 현재 광고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것은 물론, 생활이나 생각도 다른 직업의 사람들에 비해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광고의 어떤 점이 이러한 젊음을 가능케 하는가?

“
중요한 것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청년다운 사고와
실천을 하느냐」는
것이다
”

나는 무엇보다도 일의 처음과 끝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내가 아닌 남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는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움의 추구를 기반하고 있다. 가령 나를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사고할 경우, 그 결과는 결코 나라는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것도 특징이 아닌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결코 정형화된 틀이 존재할 수 없고 완성된 결과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광고장이의 경우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도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놓아야만 한다. 이 점은 광고장이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젊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외부적 강제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광고질이라는 생업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청년마을이라고 이름부친 그 곳에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언뜻 40대를 넘은 회원과 청년마을이라는 명칭이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 20여년의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하는 열정적인 토론과 의욕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청년마을이다. 사실 청년마을을 만들던 초기에는 과연 회원의 나이 제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이로 혹은 만 나이로 40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20대 초반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러한 토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청년다운 사고와 실천을 하느냐라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상호이해인가가 청년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실천단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문화

의 핵심은 선부른 경험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학교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상호간의 인위적인 서열이 정해지게 되고 이 서열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이 서열에 갇히게 되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틀이 형성되고 이로부터 자유롭기는 무척이나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청년마을에서는 철저한 개인을 주체로써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 수없이 다양하고 과감한 의견개진이 가능하고 이의 수렴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상호이해란 청년마을회원들의 다양한 직업에 기반한다. 대학생에서 회사경영자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직업적 다양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가능케 하고 자신과 상반된 의견의 도출 논리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물론 어떤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집요한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나의 작은 경험들은 젊음 혹은 청년이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나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는 것이 사실이다.

모교소식

개교 제54주년 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李姬鎬여사·許 雄 명예교수

李基俊총장 “대학의 기능 살려 지식기반사회 구축”

모교 개교 제54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6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본회 林光洙 수석부회장, 모교 尹天柱·高柄翊·權舜赫·趙完圭 전임총장, 李基俊 총장, 宋丙洛 부총장, 金基鏞 기성회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基俊총장은 기념사에서 「대학의 3개 기능이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사회봉사(services)에서 연찬(learning), 발견(discovery), 참여(engagement)의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교수와 학생, 대학과 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풍토의 조성이 없이는 대학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진정한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고 역설했다.

(기념사 요지 참조)

이날 기념식에서는 鄭夏禹(생물자원공학부)교수 등 36명이 30년 근속 표창, 崔炳善(자연과학대학)사무관 등 79명이 20년 근속 표창, 金順姬(약학대학)행

정주사 등 54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제1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대통령 영부인 李姬鎬여사, 인문대학 언어학과 許 雄 명예교수를 선정, 증서를 전달했다.

대통령 영부인 李姬鎬여사

소외계층 포용...한국 여성운동 주도



李姬鎬여사는 192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1950년 모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한국 전쟁의 혼란기에 대한여자 청년단 총본부 외교국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여성문제 연구원을 발족시켜 한국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대학강단에서 후학 양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YWCA연합회 총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최선두에서 민주화세력의 구심점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그들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데 헌신했으며,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도덕운동의 실천자로서 자신의 삶을 바쳐 한국여성의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축했다.

이같은 활동은 국내외에 큰 감동을 전하여 해외에서도 다양한 인권상, 여성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그 공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李여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과분한 영광을 안았다」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쏟겠다」고 말했다.

인문대 언어학과 許 雄 명예교수

국어학 연구로 민족문화 발전에 공헌



許 雄교수는 1957년부터 1984년까지 모교 언어학과에서 봉직하였으며, 일찍이 우리말과 글이 억압받던 시절, 우리말과 글을 지키겠다는 신념하에, 국어

학 연구의 목표를 단순한 학문적 가치를 넘어 민족문화 발전에 바탕을 두었다. 이에 우리 손으로 된 최초의 체계적인 언어학 개론서를 출판하고 독창적

인 국어학이론의 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현대 국어의 음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 합리적으로 설명한 연구 성과는 국어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15세기 국어의 공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옛말 연구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우리옛말본(1975)」의 발간은 국어학계에 불후의 업적으로 남아 있다.

현재에도 존경받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학자로서 우리말 사랑의 실천자로서 끊임없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후학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로 추앙받고 있다.

許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한평생 국어연구에 매진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해달라는 제책으로 받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李基俊총장 개교기념사

(요지)

서울대학교는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몇몇 학문분야에서 이미 세계일류의 연구 업적을 내고 있고, 전략만 잘 세우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는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만한 성취가 있었던 것은 자축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거둔 결실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세계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명제를 앞에 두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교육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최우수대학들조차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단한 교육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3월 미국의 주립대학 총장 협의체인 켈로그 커미션(Kellogg Commission)이 제출한 제6차 보고서가 대학의 3대 기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규정을 제안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사회봉사(services)의 개념을 연찬(learning), 발견(discovery), 참여(engagement)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 규정은 대학이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일방적인 통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대학과 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풍토의 조성이 없이는 대학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진정한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학사과정부터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 그리하여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이 하나 같이 既存知識의 傳授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대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저는 다음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첫째,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맞는 가치관,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배출하는 모든 인재들이 세계인과 더불어 살고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찬(learning)과 발견(discovery)이 이루어지도록 교과과정과 학사체계 및 연구 시스템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여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캠퍼스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캠퍼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Brain Korea (BK21) 사업은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BK21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서울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업적이 몇 년 이내에 세계 50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대학의 약 50개 학문분야 중에서 적어도 30개 분야에서는 세계 最高, 세계 最初 혹은 우리만의 固有 업적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지닌 이와 같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의 광범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없이 세계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학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동문을 위시한 서울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李基俊

학과 벗어난 「연합전공제」 추진

빠르면 내년 2학기부터 도입 예정

모교는 빠르면 내년 2학기부터 단일 학과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단과대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연합전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도록 기존의 여러 가지 전공분야에서 핵심 교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연합전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연합전공제의 유형은 △기술경영(경영학+경제학+공학) △국학(국어국문학+중어중문학+사학+철

학+사회학) △영상문화(인문학+정보산업공학+신문방송학) △통상외교(외국어문학+경제학+정치외교학) △PPE(철학+정치학+경제학) 등이다.

또 학생 스스로 전공 구성 분야를 설계하도록 하는 「학생 고안·설계 전공제」와 교수의 연구 영역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교수 주도 전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문학의 경우 특정 전공 없이 학생이 다양한 학문분야를 자유롭게 이수하는 「무전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음악대학

「마탄의 사수」 공연

음악대학(학장 金 旻)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총 3회에 걸쳐 제21회 정기 오페라공연을 개최한다.

1959년 제1회 「La Traviata(춘희)」를 시작으로 세련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한국 예술문화를 이끌어온 음악대학은 이번 오페라공연에서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악교수테니스회

2000년 추계대회 가져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朴聖炫)는 지난 10월 14일 모교 교수테니스장에서 추계대회를 개최했다.

본회에서 테니스회의 활성화를 위해 금일봉을 지원한 이번 대회의 입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金文基, 金善振, 준우승: 鄭相俊, 徐道植, 3위: 朴聖炫, 金博光, 閔弘植, 曹鍾守
△B조 우승: 姜昌律, 李奉振, 준우승: 李東洙, 盧在善, 3위: 徐一源, 李明均, 池東杓, 金鍾贊

규장각

정조 서거 기념 특별전

규장각(관장 鄭玉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규장각 1층 전시실에서 정조 서거 2백주년을 기념해 「정조, 그 시대와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가졌다.

조선후기의 문예부흥을 주도한 학자군주 정조의 생애와 정책, 정조대의 예술과 출판문화, 생활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鄭관장과 인문대 韓永愚학장, 간송미술관 崔完秀연구실장 등이 특별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노벨상 석학

교수로 초빙

지난 10월 19일 모교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1인당 1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 물리·화학분야의 노벨상 수상 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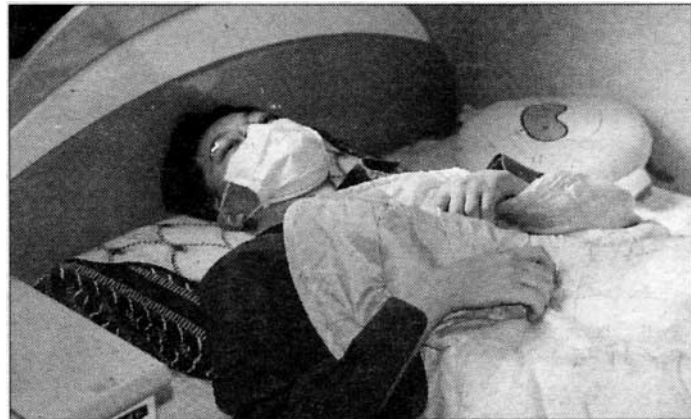
현재 접촉 중인 학자들은 주로 1980, 90년대 수상자들로서 85년 전기저항의 정확한 측정을 가능케 하는 양자화한 홀을 발견해 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클라우스 폰 클리칭 박사 등 3~4명이 우선 교섭 대상이다.

91년부터 서남재단 후원으로 노벨상 수상자 등 석학들을 유치하여 초청 강좌를 열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이 인맥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變)

“全相賢군을 도와주세요”

간경화 말기...병원비 없어



간경화 말기 증세로 사경을 헤매던 모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96학번 全相賢(사진·4학년 휴학)군이 지난 9월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동생(상구)의 간을 이식받아 생명을 건졌으나 수술비를 포함한 1억여원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全군의 부모는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매달 80만원이 넘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全군은 오래전부터 B형 간염증으로 간기능이 거의 상실돼 복수를 빼내는 일 이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전남 광양시 광영동 시장에 서 충무횃집을 운영해온 全군

의 부모는 IMF를 견디지 못하고 현재 집과 차량 등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살 곳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교회신도, 모교 국문학과 재학생 등 몇몇 이웃들이 도움을 주어 3천5백만원의 성금이 모였지만 병원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본회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지난 10월 25일 병원비로 1백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장차 언론계에 진출하여 훌륭한 언론인이 되는 것이 꿈인 全군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길 바라며,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61-793-2580, 011-626-0036, 농협계좌: 611046-52-154201 예금주 전상현)

간호대학

연건캠퍼스에 새 건물 준공



모교는 지난 10월 18일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교정에서 신축 건물 준공식을 거행했다.

간호대 李憲玉학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IMF」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교와 동창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으로 새 건물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李基俊총장은 간호대학 건립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순천향대 李千洙총장, 간호대학 楊銀淑동창회장, 모교 洪麗信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李학장은 건물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전반에 걸쳐 수고해준 건축, 건설, 전기부문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李基俊총장은 식사에서 「분산된 연구실과 강의실로 인해 간호대학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새로 건립된 간호대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趙完圭전임총장은 축사를 통해 「과거 의과대학에 편입돼 있던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렇게 간호대학 건물이 들어서고, 독립된 종합공간에서 마음껏 간호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연건평 1천8백40평에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간호대학은 교수실, 강의실, 실험실 등을 비롯해 문헌정보실과 같은 최신 시설물도 함께 두어 학생과 교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립됐다.

信陽공학도서관, 올해 착공 예정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본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공학도서관(연건평 7백평 규모)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당초 부지로 선정했던 공대폭포 옆 잔디밭 대신 공대폭포 건너편 정밀기계연구소 부근 공터

를 새 부지로 선정해 시설과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새로 지어질 공학도서관은 건립 기금을 출연한 鄭哲圭(52년 工大卒·태성고무화학 회장·本會 副會長)동문의 호를 따서 「信陽공학도서관」으로 이름 붙여진다.

박람회서 모교 홍보해줄 자원 봉사자 모집합니다

모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2001학년도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에 참가를 결정하고, 입학제도 및 학과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삼성동 COEX 1층 태평양

관에서 개최되는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에서 입시요강 판매 및 입시안내 등 모교의 홍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께서는 11월 30일까지 모교 입학관리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입학관리센터 담당자 김영빈 880-6974, 6975)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세요”

벤처기업 12월말까지 신청받아

모교의 벤처 요람인 서울대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가 오는 12월 20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 입주를 받을 예정이다.

1천여평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는 모교 교수·연구원, 재학생·졸업생들이 경영을 하거나 모교 교수·연구원들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모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들에게 사무실 공간과 부대시설

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는 11월초 모교 홈페이지(www.snu.ac.kr)와 대학신문(weekly.snu.ac.kr)을 통해 입주자 선정 공고를 하고, 12월 30일까지 1차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신청 자격 및 입주조건 등 자세한 안내는 모교 발전기금(880-6379, 880-5027)에서 받을 수 있다.



朴明潤특지장학회 대학원생에 연구비 전달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76년 保大院卒·冠岳會 理事)이사는 지난 10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00학년도 2학기 「朴明潤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朴동문이 지난해 12월 출연한 5천만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

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보건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자 중 우수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전달식을 갖게 됐다.

이날 박동문은 金秀映(박사과정)동문에게 1백만원, 朴亨根(석사과정)·李廷和(석사과정)동문에게 각각 5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약학대학 「동창의 날」 행사 가져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10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1백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학분업을 들

러싼 갈등 속에서 여러 동문들이 약업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애쓰셨다」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마음껏 즐기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화합, 전진, 도약, 단결, 성취, 창조 등 6개 진행순서에 따라 병커 탈출, 싱글 퍼팅, 페이스 페인팅, 퀴즈놀이 등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영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昶)는 지난 9월 27일 모교 경영대학원 학장실에서 尹桂燮학장과 李東琪학생담당 부학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2000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禹회장은 이날 재학생 金志惠(회계학 1학년)·朴素希(국제경영 1학년)양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상과대학

제1회 걷기·등산대회 개최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동문 가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등산대회를 가졌다.

이날 등산은 대운동장을 출발, 관악산 호수공원을 돌아 노

천극장에 모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동문들에게 참가상으로 가정용품품을 전달했으며, 모교 경영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풍악놀이 「천지율림」의 특별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부

12월 6일 「서울대의 밤」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文貞奎)는 지난 10월 15일 백양농원에서 제1회 서울대 동문가족 등산대회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

4백여명의 동문 및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은 쾌청한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느끼며, 서로간의 우의를 더욱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문 자녀들을 위해 사생대회, 풍선게임, 보물찾기 등의 다채로운 게임을 마련, 더욱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한편 부산지부는 오는 12월 6일 오후 6시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송년 「서울대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술대학

신임 이사 60명 선임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10월 14일 논현동 취영루에서 朴淑姬·鄭致煥·全峻부 회장 및 李容德사무국장, 成耆點사무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尹亨圭(고려서적 사장)동문과 金春洙(前동창회 사무국장)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동창회 이사로서 새로 임명된 60명의 동문들 중 이날 자리에 참석한 李鶴淑·田錫津·李時容·金芝烈·徐泳淑·李雲植·朴在鎬·洪貞姬·李承娟·孫文子·鄭玉蘭·李珍珍동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창회 사무실이 실제로 동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올해 개최된 「서울대학교와 새 천년」 전시회에 이어 다음 전시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新개념의 미술 문화를 표방하기로 합의했다.

가정간호수습과정

발관리 학술대회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회장 朴英淑)는 지난 10월 7일과 10월 14일, 2회에 걸쳐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축교사 기본간호실습실에서 모교 李恩玉학장을 비롯,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간호사,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복지관 근무자 및 동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許貞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王明子(경희대 교수)동문이 「건강증진의 발 관리 및 발 마사지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편 이날 개최된 학술대회는 가정 간호사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表)

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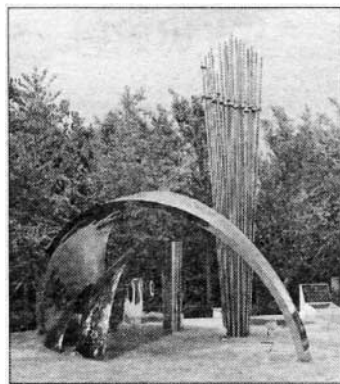
「새 천년 기념 조형물」 제막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池憲澤)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대 교정에서 「새 천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同窓會 조형물 건립기금으로 치대 일본지부 동문들이 출연한 1천5백만원을 비롯해 총 3억3천3백여만원을 모금했으며, 이중 1억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어 池회장이 조형물 제작에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문 및 동기회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제막된 조형물은 가로 7m, 세로 6m, 높이 7.5m로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돼 있으며 이



동도 가능하게 제작됐다. 제작 책임을 맡은 조각가 朴光一(경기대 교수)동문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원하라는 의미에서 「원」을 강조했다며, 나무사이에 걸려있는 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대학

모교 발전기금 쾌척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楊銀淑)는 지난 10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축건물에서 30·40·50주년 졸업동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楊회장의 주최로 열린 오찬회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을 대표해 高明珍동문이 모교 李恩玉학장에게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어 李松姬(50년卒)·崔順分(60년卒)동문 및 70년에 졸업한 金榮淑·趙東蘭·孔順玉·鄭慧淑동문이 간호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쳐 학술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기계동문회

朴德七회장 추대

기계동문회(회장 孔大植)는 지난 10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34차 정기총회 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증했으며,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백암, 월산, 불암산, 장익용, 최상홍장학금) 4백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德七(화성플랜트 사장)동문을 선출했다.

천연섬유공학과

蔡大錫회장 선출

천연섬유공학과동창회(회장 馬永一)는 지난 10월 3일 모교 수원캠퍼스 농생대 6동 잔디밭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동문 주소록을 새롭게 정비, 발간기로 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蔡大錫(前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연구소장)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張禹相(전라남도 청소년연맹 사무국장)·李龍雨(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 과장)·裴道奎(경북대 교수)동문

을 선임했으며, 감사에 曹鍾守(모교 교수)·鄭仁模(농촌진흥청 잠사연구부 연구관)동문을 선출했다.

농공학과

趙範鎬회장 선임

농공학과동창회(회장 洪承晚)는 지난 10월 3일 모교 수원캠퍼스 농생대 대강당에서 제36회 정기총회 및 「농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3백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에 趙範鎬(한국농지개발연구소 소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교 재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동문과 기술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공로패와 축하패를 각각 수여했다.

전기동문회

엔지니어하우스 견학

전기동문회(회장 金柱鎔)는 지난 9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2000년도 흙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회장은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梁承澤·丁奎喆·金國憲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1백50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은 지난 9월 7일 개관한 공대 엔지니어하우스를 견학했으며, 이어 자운암을 등반, 따사로운 10월의 햇살을 만끽했다.

(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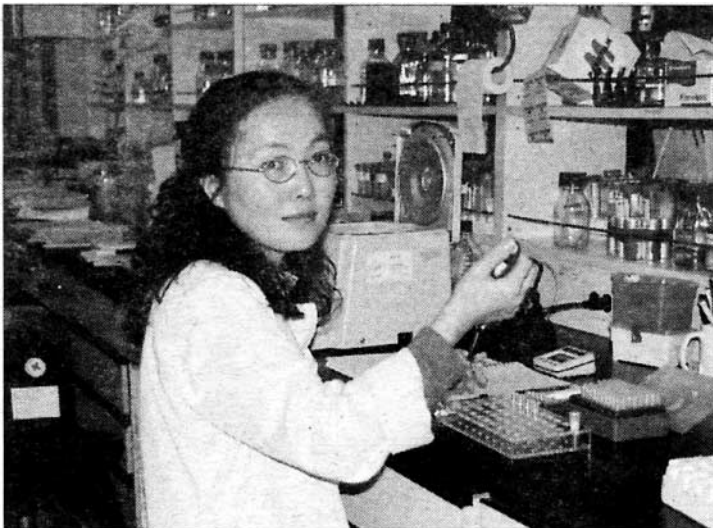
동문
화제의
Talk

(주)다이아칩 金水晶사장

여성과학자에서 벤처기업 사장으로 변신 다목적 자동진단 시약 개발에 박차 가해

『수백명의 혈액을 적은 양으로 한꺼번에 진단하는 기법을 개발, 혈액 검사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질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손쉽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91년 자연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金水晶동문은 바이오벤처기업 「(주)다이아칩(Diachip)」의 사장으로, 벤처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과학자 출신이다.



지난 99년 도미, 존스홉킨스대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金동문이 벤처기업 사장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모교 金善榮교수로부터 다목적 자동진단 시약을 함께 개발하자는 제의를 수락하면서부터. 하지만 처음 金교수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金동문은 다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난 10여년간 자신이 전념해왔던 순수 학문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응용적 측면이 강한 지금의 다이아칩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가의 갈등이었다.

당시 이러한 두 갈래의 기로에 서있던 金동문에 게 가장 큰 힘과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남편 高勝率(91년 社會大卒)동문이었다고.

87년 대입 학력고사 여자 전국 수석을 차지하기도 한 金동문은 모교 지원 당시 학과 선정에 있어, 화학과와 미생물학과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심을 했었다고 한다.

이후 金동문은 고등학교 은사님의 적극적인 추천에 따라 미생물학과를 선택, 현재의 주목받는 여성과학자이자 벤처기업 사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한편 金동문은 자신이 입학한 시기인 86년과 87년도는 우리 나라에 유전공학의 붐이 가장 많이 일던 시기였다면서 『당시 입학한 여자 동기생의 8명 중 7명이 모두 박사학위를 취득,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동기생 자랑도 잊지 않았다.

현재 金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다이아칩은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기존의 진단시약들이 사람의 손과 시간 및 진단 혈액이 많이 필요한 반면, 이곳에서 개발중인 진단시약은 수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적은 양의 혈액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

특히 이 진단시약은 1명의 혈액으로 수십 가지의 질환을 동시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수십 가지 질환에 대한 수백명 혈액의 동시진단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오너이면서도 연구의 최일선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金동문은 『실험 계획이나 전체의 진행상황, 인사관리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벅찼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영과 연구의 양쪽 측면 어디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을 배가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金동문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학문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단백질 칩을 이용한 진단기법을 만들기 위해 고심을 하던 중 예상외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공대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쉽게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金동문은 자신이 몸소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라며, 좀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金동문은 신한생명에서 근무하는 남편 高勝率동문과의 사이에 1남(형욱)을 두었다. (信)

동문기업



탐방

⑤2 한국하니웰 (주)

84년 설립, 국내 자동제어 분야의 최고봉

시큐리티·방재 사업 부문에도 돌풍 예고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 주인공 톰 크루즈가 천장에서 허리에 줄을 매고 내려와 상대방의 기밀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며, 이마에서 흐른 땀 한 방울에 목숨을 거는 장면이 있다. 관객들이 손에 땀을 쥐며 보던 그 장면의 배경이 바로 하니웰의 시큐리티 시스템 「데모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자동제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84년, 미국 하니웰社와 LG그룹이 50%씩의 지분을 출자해 합작회사로 출발, 국내에 자동제어의 역사를 써 온 한국하니웰.

한국하니웰은 설립 이래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며, 특히 지난 98년 4월 LG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국 하니웰社에 50%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한국하니웰로 재출범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과도기적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하니웰은 權泰雄(64년 商大卒)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조기에 조직·재정·영업상의 변신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이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한국하니웰, 하니웰 코리아 등 2개의 100% 투자법인과 하니웰 해성 일렉트로닉 머티리얼과 하니웰 시스코 등 2개의 합작 법인이 있다. 서로 법인은 다르지만 모두 하니웰이라



權泰雄 회장

회장이 통합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하니웰의 사업부는 크게 항공사업, 전자재료사업,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업, 특수화학사업, 터보차징 시스템사업, 공장제어사업, 빌딩제어사업, 산업제어사업 등의 8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항공사업부는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엔진, 보조동력장치, 유압조절장치, 항공통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관련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 첨단 핵심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에 수출되게 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재료사업부는 반도체칩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절연물질, 서비스 제품 등을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

업부는 우수한 기계적·열적 성질을 가진 열가소성 수지 「카프론」을 국내에 제공하고 있다. 특수화학사업부는 중간 의약품, 폴리머 제품, 공업용 특수 화학 재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터보차징 시스템사업부는 자동차·트럭·버스·중장비·산업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약 47%를 점유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공장제어사업부는 국내 최고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과 고도의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통해 석유화학, 오일 및 가스, 철강, 정밀화학, 제지 펄

프 등 연속 및 불연속 배치 프로세스의 산업부문에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빌딩제어사업부는 통합 관리 시스템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설계·시공·운전관리 등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하니웰은 이러한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며, 지난 16년간 한국의 빌딩자동제어 시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다.

한국하니웰은 앞으로 시큐리티 사업분야와 방재 사업분야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특히 시큐리티 사업의 경우 출입통제 관련 제품, CCTV 관련 제품, 알람경보 관련 제품 등의 라인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큐리티 제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One Stop 쇼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權회장은 이와 더불어 국내에 하니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e-Business를 착수, 신규사업의 기회를 창출해 나갈 야심에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信)



한국 하니웰이 시판중인 고화질 컬러 CCTV 카메라.

문화

新刊

■ 어른홍보론

—元佑鉉·朴鍾玟 共著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元佑鉉(65년 法大卒) 동문이 부산대 박鍾玟교수와 함께 사회

내의 정치, 매스미디어, 문화예술 등의 각종 현상에서 여론이 미치는 중요성을 소개한 책. 이 책은 여론과 대중관계, 여론형성 과정, 미디어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논의를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법문사刊·값13,000원)

■ 興宣大院君의 行政思想

—金潤坤 著



서울 시 지하철건설본부 金潤坤(78년 行大院卒) 총무부장이 고종의 부친 李昰應

의 업적을 행정학적 시각에서 풀이했다. 金潤坤은 서구세력이 침략한 격동기에 민족자존의 주체적 입장에서 대내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한 흥선대원군의 행정사상이 일선공무원에게도 귀감이 될 만하다고 역설한다. (삼인문화사刊·값16,000원)

■ 몬드리안이

조선의 보자기를 본다면 —鄭恩美 著



명지대에서 동·서양 미술 감상을 강의하고 있는 鄭恩美(85년 美大卒) 동문이 동양 미술과 서양미술을 70여점의 그림을 통해 비교 서술한 작품 감상집.

鄭동문은 그림을 보는 매력은 화가의 가슴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자신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을 듣는 것이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일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열림원刊·값12,000원)

■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宋義達 著

조선일보 경제과학부 기자인 宋義達(86년 社會大卒) 동문이



현재와 과거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의회 전반을 소개한 책 미국의 의회 특징과 위상, 미 의원들의 현주소, 미 의회의 입법과정, 각종 위원회와 활동내용, 의회 지도부 구성, 보좌관과 로비 등을 비롯해 기존 미 의회 관련연구 성과와 주요 검색소스 등도 소개하고 있다. (한울아카데미刊·값13,000원)

公演

■ 許元淑의 피아노이야기

—11월 19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許元淑(81년 音大卒·호서대 교수)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멘델스존, 베토벤, 쇼팽, 吳利敦(81년 音大卒) 교수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피아노포르테 546-9471)

■ 조지현 피아노독주회

—11월 19일 영산아트홀

피아니스트 조지현(90년 音大卒·뉴욕소재 Brooklyn Conservatory of Music 강사) 동문이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메시앙, 베토벤, 스크리아빈 등의 작품으로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음연 516-5141)

■ 廉寶英 피아노독주회

—11월 21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廉寶英(76년 音大卒·서울교대 교수) 동문이 바흐, 프랑크 등의 작품으로 11월 2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564-8869, 2265-9235)

■ 洪恩卿 피아노독주회

—11월 24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洪恩卿(83년 音大卒·명지대 교수) 동문이 바흐, 빌라-로보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피아노포르테 497-1973)

■ 뮤지컬 「의형제」

—12월 31일까지 극단 학전

아침이슬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金敏基(78년 美大卒·극단 학전 대표) 동문이 직접 연출을 맡아 뮤지컬 「의형제」를 장기 기획으로 공연중이다.

Willy Russel의 원작 「Blood Brothers」를 변안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 제외) 오후 7시 전후로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문의: 학전블루 소극장 763-8233)

(정리=安興燮기자)

동문의 소리

自愛하는 사람이 되자

이성간의 연정이나 애정도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상의 배타적 소유를 뜻하므로 이기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自愛로서의 사랑은 굳이 소유할 것도 없으므로 순수한 의미가 된다.

흔히 말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자칫 위선은 아닐까. 쉽게 자신을 꾸짖고 자책하는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그만큼 비판적 성향의 사람이다. 자신을 책망하는데 익숙하면서 남에게 너그러움을 베푼다는 것은 마치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재주를 남에게 보이겠다는 것과 같다. 되지도 않는 자신의 허물 고치기를 생각하느니 차라리 있는 대로 살자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용서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결국 자신의 연장선 상에서 남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다. 자기 실수가 많은 사람은 남의 실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남의 실수에 대하여 화를 내고도 금방 잊을 수 있는 사람은 평소 실수를 많이 겪어본 사람일 것이며, 그만큼 실수라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을 터이다.

자신의 잘못을 심하게 자책

세월 속에서 느끼는 斷想

서울은 나날이 달라져 가고, 졸업한지 10년이 넘는 지금 거리의 젊은 사람들과 나는 이미 세대와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올해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가며 내 의견이나 충고를 반박할 때의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럴 때면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교육방식이나 예전의 정보습득과는 많이 달라졌나 보다 하고 되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하για 지금 애들은 이미 4살 정도만 돼도 글은 못 읽더라도 컴퓨터 자판은 두드리니까. 나는 컴퓨터라는 것을 대

학에 들어와서야 처음 배웠고 미국에 가서는 그마저도 아주 구식이었다는 걸 알고는 또 한번 격분한 적이 있었다. 나야 말로 학생시절 우리 나라의 그 콩나물 교실의 창조성이 결여된 강제적인 교육제도에 치를 떨지 않았던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보상 없이 묵묵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고맙다. 특히 서울대 지도 교수님은 이미 진로도 많이 달라졌음에도 잠깐 동안 제자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아직도 여러 모로 도와주시는 데에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요즘은 개인적으로나 일에서나 힘든 일이 많아 서인 지, 체념하고 싶을 때도 많지



沈相勳(79년 大學院卒)
(주)호마 대표이사

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인색한 사람은 남한테서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하거나 「그것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관대히 생각할 것을 주문한다. 서양속담도 「Charity begins at home」이라 하지 않은가. 自愛하는 사람이라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徐銀慶(89년 藥大卒)
랩인베스트 어소시에이츠
바이오팀장

만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위안을 주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가족, 특히 기쁨을 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일을 한답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해 주지 못한 것이 다소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돌보아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모두들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싶다.

관악사를 아시나요?

흔히 서울대 동창회를 모래알 같은 집단이라고들 한다.

모두들 잘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하는 이질적인 최고의 두뇌들이 잘 단합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두고 이르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한 대학 생활 중에서 유독 기숙사만은 이러한 모래알 같은 개체(?)가 잘 융화되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인간미, 동료애를 느끼며 대학 시절의 첫 추억을 아름답게 장식한 장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1986년 3월 2일, 우리는 최루탄 가스를 마시는 등의 그 치열했던 분위기 속에서 입학식을 치렀다. 걱정하는 부모님의 눈길을 서울역에서 뒤로하고 난생 처음 객지생활을 시작했다. 그나마 기숙사도 처음엔 추침에서 떨어져 보름 동안은 289번 버스 종점 맞은 편에서

하숙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당시 필자의 방은 라동 측대 바로 밑 1층이어서 하루종일 햇볕 한 번 들어오지 않는 침침한 곳이었으니, 평소 잠이 많은 나는 수업 시간도 뒤로하고 잠을 청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더군다나 룸메이트였던 병식도 필자와 사정이 똑같아 결국 얼마안가 우리 두 사람은 사이좋게 침대를 붙여놓고 동침(?)을 했으니... 다른 방 친구들도 처음엔 아침 식사시간엔 문이 깨질 듯 깨우더니 얼마 후 모두들 포기해 우리는 마음껏 단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 1학기 학점이 학사경고를 겨우 면할 자공비행을 아슬아슬하게 감행하여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린 기억이 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 당연



裴東天(90년 法大卒)
변호사

히 새벽 두 세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친구들과 여자 친구 문제, 시국 문제 등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숙사에서 엄하게 금지하던 전기포트에 몰래 라면을 끓여 먹던 그 맛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시절 관악사에 있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바쁘더라도 언제 한 번 모여 그때 우리들의 지난 추억을 더듬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기숙사 동우회라도 만들면 어떨까?

(연락처: 053-753-3003)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2000년 5월 30일~9월 26일·一般：2000년 5월 27일~9월 27일〉

회 장 단

- ▲부회장 李聖秀=50만원
▲부회장 吳仁錫=1백만원
▲부회장 卞柱仙=1백만원

이 사

◇人文大學

배준동⁸³

◇社會科學大學

김민석⁸⁹ 박민준⁹¹ 이영두⁷⁷ 이천복⁷⁸
최형근⁷⁶

◇自然科學大學

문희록⁷⁶

◇家政大學

임정빈⁹¹

◇看護大學

김채숙⁶⁶ 오세영⁷⁰ 이은옥⁶³

◇經營大學

박정래⁷⁶ 오정렬⁹⁸ 조규근⁷⁷

◇工科大学

강일구⁵⁴ 고명삼⁵⁵ 고병천⁷⁵ 곽국연⁷⁹
곽은영⁶⁹ 구광서⁵³ 권기안⁵⁷ 권순영⁵⁶
김광교⁶⁵ 김광모⁵⁶ 김대웅⁶⁷ 김덕재⁵³
김동규⁶⁰ 김동주⁷⁰ 김득수⁷⁶ 김무현⁶⁵
김문경⁷¹ 김병린⁵³ 김병준⁶⁴ 김병진⁵⁰
김상연⁵¹ 김상희⁵⁴ 김생빈⁵³ 김승평⁶⁸
김영배⁵⁷ 김영취⁵³ 김영취⁶⁰ 김윤규⁶⁹
김윤재⁷⁷ 김종욱⁷⁸ 김종호⁶⁴ 김태준⁶¹
김형전⁵⁶ 김형진⁵³ 노태욱⁷³ 문성득⁵⁵
문희성⁶⁷ 박동훈⁷⁰ 박상률⁷⁷ 박상철⁶⁹
박수명⁴¹ 박승빈⁶⁹ 박승재⁵⁵ 박우병⁵⁶
박중훈⁷⁸ 박창순⁶⁸ 박태원⁴⁹ 박태원⁷⁷
변정근⁵⁷ 부대진⁶³ 서상기⁷⁰ 서진우⁸⁴
성기수⁵³ 상낙정⁵⁴ 송신현⁶⁷ 신현국⁶⁸
심명규⁵⁷ 안사은⁶¹ 안수길⁵⁷ 양재일⁷⁴
엄익준⁷³ 오성환⁶³ 오세철⁶⁰ 우무상⁶⁵
유성삼⁶⁵ 유용선⁶¹ 유인영⁵⁶ 윤봉순⁵³
윤재건⁶⁰ 윤재욱⁷¹ 이강우⁶⁵ 이계환⁶⁶
이교일⁶⁶ 이범호⁵³ 이승관⁷¹ 이완영⁷³
이우문⁶² 이원섭⁷⁰ 이재건⁶³ 이재욱⁶⁵
이종훈⁵⁹ 이준식⁶¹ 이현구⁶⁴ 임종규⁶⁸
장세창⁶⁹ 장영수⁵⁹ 장철환⁵⁹ 장희익⁷²
정재은⁶¹ 정조섭⁶¹ 정진화⁷⁷ 제해현⁶⁹
조규대⁵⁹ 조명호⁷⁸ 조영래⁷¹ 조일제⁵⁶
차경모⁵² 차방은⁷⁰ 최선주⁶³ 최영남⁵⁷
최흥민⁵⁶ 추지석⁶⁴ 추현출⁶¹ 한상철⁷¹
허진규⁶³ 홍의석⁸⁷ 황운광⁷⁸

◇農科大学

강현배⁷⁸ 광영구⁶⁵ 권오진⁵⁶ 김경욱⁷⁵
김동암⁶⁶ 김병환⁵⁷ 김상국⁵⁶ 김영준³⁸
김영진⁶⁹ 김영철⁶⁹ 김홍기⁶⁵ 김훈동⁶⁹
박래경⁵⁷ 박순직⁷¹ 박영인⁶² 송재관⁵⁶
심재철⁶³ 안정국⁶⁵ 오봉국⁵² 유용률⁷⁴
윤여창⁵⁷ 이무성⁷⁰ 이영호⁶⁹ 이종태⁷⁰
장정식⁶⁵ 최연홍⁶³ 최찬식⁶² 홍순홍⁶⁴

◇文理科大學

강지원⁷² 김규상⁵⁷ 김덕룡⁶¹ 김성호⁶¹

김운태⁴⁸ 김태전⁶⁸ 김하진⁶² 문명호⁶⁴
박용안⁶¹ 박용욱⁶⁹ 박호근⁷⁰ 손세석⁵⁶
신우식⁵⁷ 엄준걸⁶⁵ 오세한⁷⁰ 오희필⁵³
유병덕⁴⁸ 유양수⁶² 윤병익⁶⁰ 윤영탁⁶⁰
윤옥영⁶¹ 윤하정⁵¹ 이갑주⁶² 이경식⁵⁹
이경재⁶³ 이문조⁶⁷ 이병기⁷¹ 이병재⁶⁴
이연희⁵⁵ 이용화⁵⁷ 이종하⁷² 이주천⁵³
이준일⁶⁶ 이준희⁶⁵ 이창규⁵³ 이창복⁶³
이형구⁶³ 임병석⁵³ 장희익⁶¹ 정영의⁵⁹
조규광⁴⁸ 진정일⁶⁴ 표완수⁷⁵

◇美術大學

이종복⁶⁶ 황민자⁶⁷

◇法科大学

강순걸⁵⁸ 강영규⁵² 강용현⁷⁸ 강인현⁶²
강홍석⁶⁴ 권혁채⁶⁴ 김기천⁶⁵ 김길영⁵⁵
김길환⁶⁸ 김대환⁶⁵ 김덕영⁶⁴ 김동호⁶¹
김명진⁷⁸ 김문환⁶⁹ 김상훈⁵³ 김성곤⁶²
김세훈⁵⁸ 김승규⁶⁸ 김신택⁶² 김영술⁸³
김영채⁶⁵ 김영훈⁶⁰ 김용지⁷² 김윤욱⁷¹
김재규⁵³ 김정술⁷⁰ 김준규⁷⁹ 김진무⁶⁴
김진호⁶¹ 김찬진⁶³ 김태정⁶⁴ 김현산⁵³
김현순⁵⁸ 나대진⁷¹ 노승행⁶³ 노장우⁶⁴
문규상⁷⁸ 문영국⁶⁹ 박덕문⁶⁵ 박병희⁵⁶
박원철⁶⁵ 박정규⁶¹ 박종국⁶⁹ 반현수⁶⁴
방극성⁷⁸ 배기문⁷⁸ 변학남⁵⁶ 손수익⁵⁶
송광수⁷¹ 송민호⁵⁹ 송재룡⁶² 송준재⁶⁸
신명균⁶⁶ 안종운⁵⁵ 양영준⁷⁷ 양영태⁶²
오윤덕⁶⁵ 오혁진⁶¹ 오형환⁶⁹ 우성만⁸⁰
유명건⁷⁰ 유성근⁷³ 유창종⁶⁹ 윤교중⁷²
윤규진⁶⁰ 윤보국⁷⁰ 이경하⁶⁸ 이낙연⁷⁴
이대공⁶⁴ 이성보⁷⁹ 이수일⁷⁰ 이영욱⁵⁶
이영주⁶³ 이용훈⁶³ 이정환⁷⁵ 이종순⁶¹
이종일⁶¹ 이태창⁶⁵ 이한동⁵³ 이해원⁵³
이희규⁴⁹ 임흥빈⁵⁶ 장부용⁶⁵ 장상재⁵⁹
장준철⁷¹ 전선기⁶⁴ 전수일⁶² 정광우⁶⁹
정광진⁶³ 정기승⁶⁷ 정연조⁵⁹ 정용인⁶⁴
정우모⁶⁰ 정은구⁶⁴ 정인규⁵⁷ 정해주⁶⁸
정희준⁶¹ 조건호⁶⁶ 조동원⁵³ 조영식⁵⁰
조왕하⁷⁵ 조준희⁶⁰ 조택근⁵³ 주광일⁶⁵
최광률⁵³ 최춘기⁶¹ 하경철⁶¹ 한경국⁶¹
한영광⁶⁷ 한일성⁶⁶ 함영섭⁶⁶ 허흥구⁶⁹
현경대⁶⁴ 현병무⁶⁶ 현종찬⁷⁸ 홍성좌⁵⁶
황경진⁵⁶ 황병기⁵⁹ 황영하⁶⁴

◇師範大學

고준식⁵⁵ 공구영⁵³ 곽후섭⁵⁶ 김관영⁵⁵
김기곤⁵⁶ 김상기⁶⁹ 김연식⁵⁵ 김용균⁶⁹
김준문⁵² 나도승⁵² 남호범⁶⁹ 민재익⁵⁶
박봉배⁵³ 박종식⁶³ 박찬구⁶⁰ 박창수⁶⁵
백승관⁵⁷ 서평웅⁶⁹ 신문섭⁶⁴ 신한균⁶⁵
심상학⁶⁷ 오인영⁵⁵ 이 찬⁵¹ 이덕수⁶⁵
이민자⁶³ 이원준⁴⁹ 이유택⁶³ 이응백⁴⁹
이정태⁶⁰ 임덕순⁶² 장기욱⁶¹ 정문성⁷⁶
정문환⁶⁰ 정주섭⁶⁷ 정한진⁶¹ 주기성⁷⁶
진명자⁴² 최재근⁶² 하순봉⁶⁴ 허석구⁵⁷
홍성한⁵⁶

◇商科大學

강용수⁷⁵ 공정근⁵⁹ 김경덕⁵⁷ 김근배⁶⁶
김기현⁶⁷ 김덕기⁶⁶ 김범수⁶⁵ 김사철⁶¹
김상균⁶⁶ 김선태⁶⁶ 김성두⁶² 김성렬⁶³
김승정⁶⁴ 김연기⁶⁴ 김영석⁶⁰ 김용요⁵⁹
김웅태⁵⁷ 김원길⁶⁸ 김원환⁶⁰ 김재철⁶⁶
김중기⁵³ 김중수⁷³ 김창진⁶² 김현욱⁵²
김현배⁵⁷ 김현주⁶⁴ 김형영⁶⁰ 김호식⁷³
김홍구⁷⁰ 나길웅⁶⁵ 류종목⁶⁵ 민경재⁵⁹
민병윤⁵⁵ 민병패⁶⁵ 민해영⁶⁰ 박기종⁷⁶

박대평⁵⁹ 박민욱⁶² 박병렬⁵⁷ 박상은⁶¹
박원배⁶⁴ 박종한⁵³ 박찬중⁶⁵ 박창부⁶⁵
박현두⁶⁴ 배경일⁷³ 변창기⁵³ 서영교⁶⁶
설원량⁶⁵ 손상모⁵⁷ 손희균⁵⁵ 송국현⁶²
신명호⁵⁰ 원우식⁵⁶ 윤녹현⁶⁵ 윤문환⁵⁶
윤용석⁶⁴ 윤우진⁶⁵ 윤종현⁴⁶ 이근재⁵⁶
이근희⁵⁶ 이동대⁶¹ 이용우⁶⁵ 이주찬⁵⁹
이진우⁶⁵ 이택섭⁵⁶ 이해욱⁶³ 이화진⁶⁴
임응원⁶⁴ 임종수⁶⁵ 임진택⁷³ 장기팔⁶²
전재희⁵³ 정상진⁵⁷ 정인근⁷⁴ 정희영⁶⁵
최명규⁴⁹ 최수영⁶⁸ 최운렬⁷⁴ 최정환⁵⁵
최태규⁵⁹ 탁갑근⁷⁵ 허남린⁶⁰ 홍성인⁶⁰
홍성주⁶⁴ 홍재형⁶⁰

◇獸醫科大學

구본훈⁵³ 김남홍⁶⁴ 김동훈⁶⁰ 김성수⁶³
김순무⁶⁰ 김인호⁵⁷ 김재원⁶⁵ 김조응⁵⁷
김택수⁵³ 나기식⁶⁸ 석세조⁵⁴ 신현일⁶¹
윤화영⁸³ 이도필⁵³ 이상만⁵⁶ 차종상⁶⁰
최성호⁶¹

◇藥學大學

공영주⁶³ 권오락⁶⁴ 김규호⁷² 김낙두⁵⁷
김명수⁷⁵ 김선중⁶⁵ 문승만⁶⁰ 박만기⁶³
박사룡⁶⁶ 송희성⁶⁴ 신현학⁶¹ 유충규⁷⁴
윤광철⁶¹ 이기평⁶⁴ 이계준⁶⁸ 이규호⁶⁵
이규환⁵⁶ 이길웅⁶⁹ 이민화⁵⁹ 이상섭⁵⁴
이필량⁵⁷ 장학순⁵¹ 주영현⁴⁸ 한규홍⁶⁸
허 상⁶² 홍순억⁵³ 홍우일⁶⁵

◇音樂大學

김혜경⁵⁴ 안형일⁵³ 유영명⁵⁴ 이경숙⁵⁵
이성천⁶⁵

◇醫科大學

강신일⁶⁴ 강치명⁴⁹ 고원순⁷⁴ 김동은⁵³
김명호⁷⁴ 김병찬⁶⁰ 김승원⁵⁵ 김승욱⁷⁸
김시환⁵⁹ 김영덕⁶⁶ 김영민⁶² 김우곤⁶¹
김종선⁶⁶ 김중호⁶⁶ 김진조⁴⁵ 동영송⁵⁶
문성무⁶⁶ 문진수⁷³ 박경호⁵¹ 박문희⁵⁶
박영희⁵⁰ 박인서⁶⁰ 박재갑⁷³ 선덕영⁴⁹
성기호⁶⁰ 손기섭⁵⁷ 송영명⁷³ 신현호⁷⁸
심영수⁶⁹ 오경관⁷³ 오승환⁶² 오상길⁶⁴
이민호⁷³ 이부영⁵⁹ 이정균⁶² 이진오⁶⁴
임한준⁵⁷ 장성근⁷⁷ 정을삼⁶⁶ 조경환⁵³
조병규⁷⁰ 최 황⁶⁹ 최관홍⁵³ 한대희⁶⁷
한정철⁶²

◇齒科大學

강기봉⁶⁰ 강성현⁷⁵ 김병기⁶⁷ 김병찬⁷⁵
김용운⁶⁸ 김정근⁶⁵ 김종철⁷⁷ 김창원⁷⁵
라운영⁶⁶ 명동성⁶⁷ 박상균⁷³ 박재중⁵⁵
박찬유⁷¹ 방달호⁶³ 배우홍⁵⁰ 백성기⁷⁸
변석두⁵⁷ 변영남⁶⁹ 성훈경⁵⁹ 송영호⁶¹
안효일⁶² 양후열⁶⁰ 유지린⁶³ 이금룡⁶⁴
이봉재⁶¹ 이상철⁶¹ 이언호⁶⁶ 이용오⁶⁰
이종률⁶⁵ 이준섭⁵³ 이형규⁶¹ 임용준⁷²
전영섭⁶⁶ 조성복⁶⁹ 주낙림⁶⁰ 차혜영⁶⁷
최옥환⁶¹ 허상원⁷⁰ 한웅렬⁶⁵ 황오현⁵⁶

◇大學院

김흥렬⁸⁴ 정문기⁸³

◇經營大學院

김용범⁷¹ 김한준⁹¹ 김호봉⁶⁹ 김환중⁷⁰
박무익⁷⁰ 배영한⁷² 안성기⁷⁵ 육승환⁹¹
이상락⁶⁷ 이운재⁷² 이운수⁶⁸ 이철우⁷⁰
한기룡⁷⁴

◇教育大學院

사종식⁷¹ 신극범⁶⁸

◇保健大學院

여현태⁶⁷ 정영채⁶¹ 조경종⁷⁰

◇司法大學院

김기수⁶⁵ 김용환⁶⁸

◇行政大學院

김한곤⁷¹ 박영환⁶⁸ 방극윤⁶⁶ 오자복⁸²
전주식⁶⁴ 황갑순⁶¹

◇環境大學院

강길부⁸⁴ 박춘배⁷⁹ 박형석⁷⁴

일 반

◇人文大學

강인선⁷⁶ 강인자⁸⁶ 공영화⁷⁹ 곽재성⁸⁸
김기모⁸⁸ 김범준⁹⁰ 김인배⁷⁸ 김정남⁸⁹
김정현⁸⁸ 김정호⁹⁵ 김종원⁶³ 김한국⁸³
민동홍⁸¹ 박정아⁹⁰ 박진형⁹⁸ 배종규⁶¹
백복실⁷⁸ 변원일⁷⁶ 서정기⁷⁶ 송미영⁷⁷
신연호⁷⁸ 안철훈⁹⁸ 오병갑⁸⁰ 오성기⁸²
유명숙⁷⁷ 유정렬⁸⁵ 윤종민⁶³ 이규성⁸⁵
이남희⁸⁵ 이명훈⁸³ 이봉연⁸⁷ 이상희⁸⁹
이우용⁷⁹ 이일환⁷⁷ 이종선⁷⁹ 임성재⁹⁵
임승용⁷⁶ 장대철⁸⁸ 장소원⁸⁴ 정영란⁷⁷
정원섭⁸⁹ 정운철⁹¹ 정지용⁹² 정혜경⁸⁷
조호연⁸⁴ 최남재⁸⁹ 최승환⁶⁰ 최우경⁹³
최재현⁹³ 하선규⁶⁵ 한정현⁷⁸ 함호근⁹³
허미경⁸⁹ 홍성민⁸¹ 홍영호⁷⁹ 홍지일⁷⁷

◇社會科學大學

강 찬⁸⁹ 강경희⁸⁸ 강대성⁷⁸ 강정원⁸⁸
강종석⁸⁵ 곽희성⁹⁷ 구수진⁹³ 김 암⁸⁹
김경수⁹⁷ 김광덕⁶⁶ 김대희⁸⁵ 김동식⁸⁷
김민수⁹⁶ 김민주⁷⁹ 김범조⁷⁸ 김부성⁷⁷
김선혁⁸⁹ 김성권⁸⁴ 김승기⁷⁶ 김용대⁷⁹
김용숙⁸³ 김용창⁸⁶ 김재성⁷⁸ 김정수⁷⁸
김종민⁹⁷ 김주영⁸⁶ 김형민⁹⁴ 김형석⁸⁷
김호균⁷⁸ 김홍진⁸⁸ 남승배⁸⁰ 남승우⁹⁰
남준희⁸⁹ 노창현⁹³ 노택선⁸³ 민규동⁹⁶
박병룡⁸⁴ 박상규⁷⁸ 박상현⁸⁸ 박종술⁷⁷
박준식⁸⁶ 박진희⁸⁰ 방창식⁸⁷ 백승훈⁸³
백승훈⁸⁵ 서왕진⁸⁹ 서장목⁸⁴ 소병수⁸⁰
송남섭⁹⁶ 심영아⁹⁴ 심일혁⁹³ 안백훈⁸⁶
안선아⁸⁹ 안영일⁸⁴ 안재완⁹⁰ 안창모⁸⁰
양호성⁷⁸ 엄성호⁹³ 유성록⁸⁶ 유승호⁸³
유승희⁸⁹ 유해일⁹⁵ 은기수⁸⁵ 이광훈⁸⁹
이교욱⁹⁰ 이기운⁹² 이남운⁸³ 이동진⁸³
이동호⁸⁵ 이상원⁸³ 이석원⁸⁰ 이정윤⁹⁵
이준웅⁸⁵ 이창수⁸⁹ 이창우⁸⁸ 이태환⁷⁷
이해승⁸⁶ 이호준⁹⁰ 정광용⁹⁵ 정영록⁸¹
정은호⁹⁰ 정인룡⁸² 정진영⁸¹ 정현욱⁹¹
조기승⁷⁷ 조석근⁸¹ 조영일⁸² 조정호⁹⁵
조준성⁹² 지호준⁸⁴ 최 훈⁸⁵ 최운섭⁹⁵
최정규⁸⁹ 최형두⁸⁸ 허병기⁸⁰ 한덕연⁸⁸
한영기⁸² 한진수⁹⁶ 허동호⁸⁹ 홍단식⁹⁰
황선웅⁷⁶ 황영수⁸¹

◇自然科學大學

강대승⁸⁸ 강병국⁹⁵ 강봉근⁸⁴ 강봉주⁸⁸
권 혁⁸⁹ 김광준⁶¹ 김동건⁸⁶ 김병극⁸³
김병문⁸⁰ 김상보⁸⁶ 김성은⁸⁶ 김승우⁸⁹
김영규⁹⁷ 김재우⁷⁶ 김찬중⁹⁵ 김창환⁸⁹

김한철⁸⁸ 남창훈⁹² 박상용⁸⁹ 박상일⁸¹
박성준⁹⁹ 박현섭⁸⁸ 변희석⁸⁴ 석관수⁸⁸
손병기⁷⁸ 송 운⁹² 송기형⁸¹ 송대엽⁸⁵
송준화⁸⁸ 신석민⁸⁵ 여선구⁸⁵ 오달균⁸⁰
유기남⁸⁴ 이근형⁸⁶ 이상구⁹³ 이선우⁷⁹
이순걸⁷⁹ 이종승⁸¹ 이용재⁷⁸ 이용학⁷⁸
이재용⁸⁶ 이종대⁸⁹ 이호성⁸¹ 임병철⁸²
임태순⁸⁴ 장경우⁸² 정승욱⁸⁸ 정인채⁸⁶
정일호⁸¹ 조승제⁹¹ 조운희⁸⁸ 조화재⁸⁰
채광수⁹³ 현서강⁹³ 홍성출⁹⁶ 황광섭⁷⁶
황병천⁷⁶ 황윤순⁹⁰

◇家政大學

강창자⁶¹ 고영숙⁷⁴ 고희정⁹¹ 권순자⁹¹
김경옥⁷³ 김수향⁷² 김은희⁷³ 김정자⁶⁷
김형란⁸² 류지수⁸⁷ 민수인⁹⁰ 박경희⁷⁷

김광선72 김광수83 김광태78 김구면98
김규수50 김규홍55 김기준61 김기풍55
김남형67 김남호89 김달수83 김대식77
김대영75 김덕초64 김도환80 김동성77
김동인66 김동주73 김두진65 김무조63
김민세63 김민태98 김병민87 김병제56
김봉태83 김삼곤68 김상용88 김상환77
김선준80 김선호79 김성기84 김성대88
김성수98 김성환87 김세영74 김인순58
김영준65 김영전65 김영택62 김영현79
김영화63 김완수49 김용근79 김용철75
김용환92 김원수65 김원식80 김원태61
김유경72 김유석94 김은철93 김인섭65
김인수79 김임수67 김장선80 김장주77
김재근77 김재봉73 김재정83 김재중53
김정구69 김정근65 김정기72 김정선74
김정순79 김정인94 김정중62 김정진77
김종범70 김종열83 김종욱87 김종진63
김종진77 김종철70 김종하86 김종한67
김종훈73 김준언74 김지덕70 김진무69
김진운79 김찬수81 김창석69 김충엽61
김택호98 김학준72 김학전72 김한길85
김한철78 김항준77 김현태78 김형만80
김형민81 김형수94 김효표82 김휘중71
김흥기70 김희철91 나경식55 나정우79
남정수71 남하우58 노명일98 노병환80
노승규66 동현수80 류명선88 류종석81
문규철73 문동민61 문동채69 문명남67
문병수61 문재춘78 문종우90 문창호78
민병준82 민병찬46 민성기71 민철기63
박계영61 박국배66 박규원79 박기서75
박동만63 박동재58 박동진71 박명준57
박민규91 박병찬77 박상식92 박상집82
박상호80 박석봉75 박성규63 박성대53
박성준82 박성혁82 박시동66 박영세86
박용규62 박용길86 박유준95 박운성51
박의종65 박인규79 박인오87 박재규61
박재서72 박재암64 박재우78 박정석77
박정현58 박정호76 박준수73 박종욱75
박종일61 박종태65 박준범85 박창룡70
박창호70 박철완80 박태현81 박홍석81
박화규81 박홍원79 방교윤71 방국렬64
방용일69 배오섭80 배유재57 배재홍77
배창국57 백만기76 백사익42 백승하85
백완규66 변재환67 부장원96 서병은62
서봉수56 서석철58 서성기88 서영근65
서재영76 서정만68 서정하58 서현석89
선석문72 성영철93 손갑현75 손상원77
손석기76 손승태71 손창근53 송광호88
송대호72 송명철69 송배원79 송부호67
송상훈91 송수영55 송원철77 송재국56
송진해72 송태영69 송태원98 송현택56
신건학61 신영수78 신원기70 신윤승78
신인수77 신재기66 신종용76 신필수73
신형철58 신호승98 심수병73 심윤관60
심응섭75 심종민83 심한배76 심형주56
안덕주61 안면섭62 안명주56 안사섭67
안상준72 안순신73 안영배55 안우영79
안정준64 안호순48 안호열57 양동률54
양배덕61 양승철94 양영렬90 양홍모68
양홍석47 어 준56 여영환90 여태승86
여대정83 염창신84 염희고62 오세현63
오시영88 오양섭55 오영민84 오은택79
오인택65 오재화66 오찬현79 오치재74
오항기46 오형식84 옥영석82 왕동근67
우종삼60 원성필79 유남일95 유범상79
유심덕65 유용주97 유정근57 유제원90
유채호81 유하영74 유현석89 육내승51
윤덕호77 윤민수92 윤상철55 윤성근90
윤영민65 윤영인84 윤용근85 윤은원66
윤정복67 윤종성93 윤주홍74 윤창현72
윤현기80 윤형진73 이경근81 이경기59
이경돈80 이경태89 이경철47 이광배77
이광용83 이광우77 이광진73 이권섭73
이귀로76 이규남99 이기호77 이길형84

이낙주51 이남구75 이내선57 이덕현59
이동권75 이명일67 이명호57 이민종83
이병록65 이병무65 이병수62 이병호95
이봉주71 이삼무73 이삼구85 이상보90
이상산84 이상식84 이상익46 이상철81
이상호77 이상희82 이선계69 이선형63
이성범87 이성은78 이성호85 이수복94
이수홍67 이승무65 이승일68 이이영67
이영운74 이영집66 이윤근73 이윤백61
이용석73 이용성82 이용식72 이용우68
이용훈78 이우길67 이원호78 이은우74
이인섭86 이인혁98 이임택65 이재근65
이재성46 이재일70 이재철82 이재철83
이재풍73 이정묵58 이정열83 이정우69
이정웅63 이정진91 이정태69 이종근52
이주형91 이지영91 이진근41 이진환85
이창배53 이창범81 이창수85 이창주80
이철환81 이철룡65 이충훈85 이태성61
이태수81 이한배62 이한수98 이해철98
이호선95 이호인70 이희일56 이희철95
인성남67 임 용91 임경희73 임두호76
임병진88 임영호54 임정재70 임종혁64
임진남50 임현구73 임형동88 장기덕73
장덕환57 장동립64 장동섭85 장명섭89
장병준72 장병훈58 장석열89 장세동89
장정요59 장준원79 장창학74 장철수79
장필승96 장홍규58 전갑문57 전광병78
전민제50 전병진78 전복현68 전익수85
전효택71 정무진69 정문범65 정상열80
정상철96 정석현65 정성희69 정성환81
정순욱69 정연근80 정영우68 정원배66
정익주86 정인수77 정인종64 정재길60
정정웅64 정종대63 정차수80 정한중81
정해식65 정현생68 정화진89 정환구49
정희준71 조남소93 조남준85 조동영70
조명재76 조영갑72 조영호82 조용석81
조유근71 조응현62 조인식99 조재병79
조정호65 조종현60 조창민90 조창현88
조태훈81 조현준75 조형래64 주명로67
주영창87 주월동49 주진운70 주희전47
지만식65 지재웅68 진병신67 진조철80
차근오83 차기원72 차석배63 차원갑53
전동락80 전유식69 최 훈82 최경진71
최규복61 최길선69 최도석94 최동규70
최두환79 최명진63 최병선71 최상혁63
최상호79 최석림61 최수준73 최양희75
최영석88 최영식56 최유화77 최운철73
최은철61 최종원84 최종하65 최창순70
최호진82 하선호74 한동환56 한무영77
한민수79 한상국62 한상훈79 한성갑56
한은석77 한인석71 한종훈74 한종희94
함태근60 함태용68 허 준90 허규용58
허병구42 허병윤61 홍안의67 홍영환79
홍용남71 홍종재78 홍철기84 홍호식73
황규덕53 황규홍79 황봉동80 황성태60
황정연80 황희선63

◇農科大學

감동근98 강광희63 강동수90 강문주48
계경성71 계홍석94 고상현89 김갑성47
김근영69 김기렬67 김남혁57 김능식95
김명호74 김미혜87 김병모93 김상훈88
김숙자66 김시홍73 김영삼64 김영창65
김영철63 김용찬61 김원봉97 김원수62
김인철87 김재민66 김재진65 김재희88
김정구88 김정기61 김정우89 김정혜65
김종률76 김진석75 김진수75 김철겸95
김철영54 김태수75 김현영73 김호영55
김희창82 남궁준95 남완우52 문철명68
민원동69 박경제77 박광훈57 박귀두88
박동우74 박민수56 박승룡59 박영선61
박용욱54 박정덕99 박종민87 박형만79
방형구71 백승언48 백연수65 백은기53
부경생64 서돈영67 서민환85 서영섭54
서정락60 서정연89 성봉제62 성수일70

성용훈56 손동희71 손옥주92 손현수53
송기면80 송삼석67 송영수53 송지섭85
송창섭81 신덕현71 신동완54 신동운62
신명철67 신민범92 신민호52 신부길67
신승욱93 신왕식72 신원집64 신윤종50
심의구55 안용태66 안의성60 안장환64
안치일80 양 인87 양승엽56 양호석63
엄성연92 엄익환62 오승환61 오현준61
윤환운61 우건석93 우병국80 원청언69
유 석65 유대식62 유석린54 유선준94
유시균63 유신상60 유장렬72 유지성63
유호섭80 윤병일60 윤정원89 이강세62
이경희76 이관희59 이광웅68 이기복57
이도천60 이도욱60 이동찬87 이명희71
이병갑57 이상범62 이상훈63 이상우73
이수성63 이연경98 이우신82 이우용55
이우철81 이원규63 이윤우57 이윤환64
이장훈89 이재구62 이재문65 이재영69
이종기64 이종수72 이종호70 이종환83
이중기60 이창구70 이철영82 이호준68
이호진67 이흥구68 임계숙64 임용택62
임용호86 장 옥77 장재기96 전영수88
정근우90 정금주67 정병기57 정상호92
정세진79 정시식65 정영근91 정을규65
정종호98 정진구69 정천용63 정충남64
정태무73 조규태78 조성지56 조성환56
조수형63 조진태68 조진형95 조한보52
진용수88 채상묵85 천정웅66 최규홍58
최병갑90 최순호69 최영국59 최영규69
최영일56 최영주62 최창욱94 최창일71
최창호97 최희석64 하 원92 하현철88
한상진66 한판주60 한화섭49 허주철87
허충구83 홍석인63 홍승진86 황의충66

◇文理科大學

강경식66 강명순65 강병원69 강세원60
강신환53 강인규63 강인숙56 고광용64
고광희71 고영근61 권오관64 권오규57
권태환65 권혁정63 기건호70 김갑용73
김경두75 김기영70 김동준69 김동학57
김명정71 김병각67 김부남70 김성기65
김성수58 김시창68 김영도56 김영식68
김영운57 김영민68 김영일64 김영진57
김영환71 김용달62 김용술66 김용혜75
김위겸49 김일철57 김재관51 김재수68
김정식66 김정호55 김중국71 김중섭55
김종은74 김주만72 김주철67 김진석65
김진호72 김찬근73 김찬수64 김치수64
김태승58 김태형71 김학출61 김현관75
김현일64 김형일58 김호경64 김호정57
남궁원65 남기흥74 남대국67 남성우63
남정이71 남형화74 노영찬57 도홍렬63
문양수66 문인형64 박관상52 박상우64
박순웅66 박은수60 박일현52 박종렬71
박주기64 박한제73 박형달60 방 곤55
방익찬73 배광선70 배길훈70 배인하66
백동기50 복진태74 서병국57 성민선68
성세열63 소광섭68 손복조74 송길상54
송대성73 송석훈65 송원일62 송인찬63
송창범75 신원선66 신진순74 신충근55
신혜사62 심민화74 심상관62 심영호63
양은승57 염정임67 오근영65 오상훈74
오선재66 오수국74 오준석52 오현승69
우영의63 원용문66 원인기70 유광식62
유기수57 유민성71 유병길72 유인태74
유정렬52 유치조53 윤효윤63 이 랑64
이 윤69 이강승71 이강웅67 이규일57
이근남72 이근택73 이근호61 이기백67
이병형71 이상근61 이신복60 이영준72
이용욱60 이우용68 이원재65 이인목75
이자현53 이재근61 이정순64 이정순68
이종명73 이종철66 이주영65 이주한60
이준모70 이지영74 이진성75 이창민66
이항주60 이호경63 임광순72 임득호71
임응식66 임인철67 임재호64 장세열71

장영태68 장인식65 장종학63 전동성72
전민수59 전재근63 정 해50 정병오74
정성재71 정연국68 정연근54 정연채73
정영일63 정은택49 정태훈53 정한규64
정해웅54 조기안72 조기웅73 조무현72
조봉래71 조성술57 조창호65 조창화62
조한은71 주수길65 주승택67 주은선63
지정택74 채치범63 천정락73 최 혁68
최병두58 최용영64 최일환62 최중무72
최태호70 한상복70 홍경희72 홍성훈61
홍영백61 홍원희73 황수익64 황영선63
황영애70

◇美術大學

강수인94 김경수63 김도원55 김미숙87
김병준81 김형주70 박남희74 박요원60
박한진61 부수언61 심철웅82 오세현99
오수환72 유병수63 윤기언98 윤남순58
윤명노60 윤형실58 이강소65 이경희71
이계안64 이동연55 이동웅88 이문숙70
이선원79 이성은68 이성화70 이소현99
이용국65 이원자63 이정은94 이중희71
이창원98 이춘만62 이태영65 이혜인68
임송자63 장동광68 장우경83 장운우62
장혜웅73 전민숙78 전상수55 전석진59
전수진96 정수아86 정종미80 정치환64
조정애75 최병상61 최성배68 최장일64
홍광현90 홍동식51 홍영민96 홍혜숙73
황인혜69

◇法科大學

강석균54 강일원82 고연금91 고재혁57
고재화66 고창현88 권대렬74 권대웅68
권원용81 권형준71 김병위72 김진삼65
김광주66 김국진65 김근태57 김기경90
김남식61 김동진69 김동익57 김동현71
김민석64 김병길66 김병문66 김병학66
김보근57 김복규81 김복욱65 김복지54
김선병58 김수철75 김순평65 김신형61
김양모59 김영배68 김영욱76 김영훈87
김용기56 김용한63 김윤도42 김윤철52
김의환65 김익건90 김인만65 김인선61
김주일58 김중성85 김진모61 김진병89
김진태87 김진홍61 김찬동57 김창희56
김천수82 김대병69 김대성68 김택수77
김택환61 김학재67 김형진79 김형태55
김형태80 김호철69 김환수56 김홍걸74
김희용64 남영찬81 도세경65 문성우79
문원주60 문창성72 문택상54 민철식63
박경순76 박광배66 박국경62 박노문70
박동현75 박민환70 박병민73 박송규58
박승욱83 박승준64 박양한64 박영근84
박영현73 박원표76 박종복71 박천서60
박태훈70 박희수74 반성우59 방인걸89
배기열86 백상현77 변득수67 서건익63
서동우85 서상수84 성맹문82 성민섭82
송남석62 송재원65 신영수74 신창민64
신필중66 심명수63 심우정95 안병근82
안재홍84 안종혁61 양세성71 여원주96
염웅철80 오경락58 오기평57 오상영78
오상태60 오세혁66 오종환87 우종팔65
유광현77 유두환65 유민상44 유성욱92
유승남66 유정석70 유종현66 유창수72
유태길57 윤정수87 윤태식87 이경민80
이경우83 이광민85 이규원57 이기영65
이기원57 이대영56 이덕구58 이동득63
이민재76 이민찬61 이상기63 이상민64
이상완68 이상원64 이상덕71 이수영72
이순중66 이원철76 이우영94 이원규73
이원재85 이상석79 이재현74 이재재51
이종욱63 이종환63 이준봉65 이준상43
이지희66 이진영64 이창범67 이철우47
이충호84 이태운72 이해석61 이흥구53
이홍길64 임성권83 임순묵58 임순철61
임용원68 임철홍67 임희복73 장태규80

전성호60 전용희65 정덕홍72 정선숙63
정세욱60 정승진88 정종섭81 정진용92
정태용99 조두현58 조석래55 조열근58
조왕제60 조용국69 조용무64 조원일68
조한룡99 조한창87 조행숙51 차중호57
차철순74 천기필59 최동섭60 최민호82
최병구71 최병무63 최연택80 최영기56
최종원76 최해덕65 허명래74 한만춘42
함철상48 허만조68 허선호99 현규호57
홍순범52 홍순영44 홍성채58 홍영택70
황 철66 황선익72 황선태70 황우진99
황종태55

◇師範大學

강병찬60 강성주90 강양아89 강양희61
강은숙85 광형기75 구영주76 권오현75
권태원67 권홍수88 김경수64 김경훈80
김광운77 김규식76 김규영44 김기우80
김길중52 김동진66 김동환84 김병성67
김봉규56 김상현69 김석훈79 김선주80
김성태73 김세경58 김순매40 김억관71
김영두73 김영복68 김영수74 김영수90
김영숙47 김영웅73 김영의53 김영자63
김영찬59 김예기58 김옥성43 김옥희70
김용복61 김우탁61 김인숙58 김일병69
김재식93 김재운57 김재호75 김재홍70
김정길65 김정란63 김정숙94 김주화69
김준말58 김지선72 김진호84 김진후78
김창호73 김태갑58 김학수57 김한주83
김현진55 김해우69 김형수43 나고찬56
나귀수91 나성환56 남규이41 남기경62
남기종54 목진식84 문성식59 문영식77
문지연90 박 재44 박광재89 박노욱65
박동현78 박문태65 박미숙88 박병래54
박용현57 박인자70 박장순57 박재근65
박종서61 박종원57 박지원48 박창근58
박홍식83 방재근66 방정애60 백은택63
변희준62 복성규74 서정상75 서정율51
성경제56 성본섭66 손동숙69 손영재98
송복주57 송일웅64 송재식58 송해자60
신광근72 신복환61 신승기87 신영희74
신정인90 신하영63 신혜순51 신희근64
안영숙56 안정순43 안창원87 안희수65
양교석68 양승학69 양태일63 여상인83
여태웅87 연대성64 오건주80 오기세80
오평진75 원종화86 유기갑74 유영선93
유오진62 유원수60 유환욱62 윤갑진87
윤경식78 윤기정72 윤동혁61 윤여각85
윤이중71 윤재석75 윤정혜63 윤태익65
윤홍준61 이강하60 이경남63 이경우49
이광섭60 이구범73 이기방63 이기종60
이달호50 이덕환57 이문자67 이병렬69
이범종82 이범직65 이시행45 이상용77
이상욱91 이상재71 이상규61 이수동76
이승원77 이영재72 이완기48 이용덕71
이용재63 이재관71 이재근43 이정록74
이정욱62 이준희63 이종각72 이종순56
이종일72 이종철64 이종철80 이찬승73
이창국64 이태준53 이택준52 이학윤57
이현수76 이흥구85 임재화95 임흥선57
장성희82 장영호81 전상열91 전수남63
전옥순41 전의숙72 정강주74 정광수77
정규범77 정기언76 정두영64 정세진44
정수현84 정영진58 정영호56 정의포77
정인형68 정일동55 정일영65 정정수57
정찬영60 정철재60 정창희66 정희욱85
조규홍64 조성연91 조인형64 조초희72
조현민77 조희식58 주덕중60 주동훈78
지윤호55 지은숙73 진기문76 채미영86
최계숙56 최명순58 최명희87 최성식77
최예종69 최요섭78 최진섭81 최희주56
한성욱99 한인숙70 한전욱75 함오연74
허 연48 허용범61 허현도56 호문룡60
홍기삼67 홍덕훈76 홍성흠52 홍순관63
홍원기71 홍은경58 홍정희60 황경화57

황궁연⁵⁴ 황만익⁶³ 황상익⁶³ 황적륜⁵⁸
황종근⁸⁰ 황종복⁷⁰

◇商科大學

강 옥⁶⁰ 강달중⁵⁵ 강상기⁵⁷ 강신용⁶²
강용운⁶⁵ 고명환⁵⁶ 고을상⁵⁶ 공공우⁵⁵
곽종선⁶¹ 구대서⁶³ 권계홍⁶³ 권이성⁵⁶
김 광⁶⁶ 김 택⁵⁶ 김두만⁶³ 김무홍⁷⁴
김문수⁶⁶ 김병희⁵⁸ 김봉년⁶⁴ 김석환⁶⁸
김선길⁵² 김성인⁷⁰ 김성현⁷² 김옥운⁵⁴
김용술⁶² 김정호⁷⁴ 김정훈⁵⁴ 김제심⁵⁶
김종락⁵³ 김종찬⁷¹ 김종해⁵⁵ 김주호⁵⁴
김준식⁷⁰ 김중수⁵⁶ 김진호⁵¹ 김진흥³⁶
김철녕⁵⁷ 김치락⁵² 김태웅⁶⁶ 김택렬⁶³
김현주⁶³ 김홍식⁷⁵ 나용배⁶⁷ 노준찬⁷⁰
노창환⁵⁷ 문학도⁶⁴ 민경휘⁷⁰ 박노영⁶¹
박만철⁶² 박용민⁷² 박용범⁶⁶ 박용서⁶¹
박원규⁶² 박정진⁵⁷ 박종대⁷⁰ 박창식⁶⁶
박태준⁷² 박홍서⁵³ 배재용⁷⁴ 백승태⁷⁰
백정기⁷⁵ 북한채⁵⁶ 서동범⁵⁵ 성낙정⁴⁴
성락후⁶³ 성백규⁵⁶ 송구현⁶⁵ 송무희⁶⁵
송재관⁷⁰ 송재복⁶⁷ 송정위⁶⁶ 신명수⁶⁴
신문철⁵⁶ 신위철⁴⁹ 심남진⁵³ 심재영⁶⁴
심창순⁶⁴ 안희중⁶⁵ 양해영⁶⁷ 오남호⁶¹
오대렬⁴⁹ 우홍식⁵¹ 원한영⁶⁰ 유권상⁷⁵
유방창⁶⁵ 유병만⁶⁹ 유봉단⁵⁷ 유인호⁴⁵
유종백⁵⁷ 유희선⁷⁰ 윤상규⁶¹ 윤진식⁵⁶
윤창의⁶⁴ 이기석⁶⁶ 이도근⁵⁵ 이병규⁶¹
이병대⁶⁵ 이병세⁴⁸ 이상운⁵⁹ 이수신⁷⁰
이영걸⁶⁵ 이영주⁵⁷ 이장호⁶⁹ 이재등⁶¹
이재우⁵⁵ 이재원⁵⁹ 이정규⁴⁸ 이종오⁵⁶
이춘원⁷¹ 이충선⁶⁸ 이한희⁵³ 이해익⁶⁴
이환배⁷³ 임동관⁵⁵ 임정일⁶⁶ 임호운⁷²
전상희⁶⁵ 전창기⁶³ 정덕화⁶² 정인승⁵⁴
정주병⁶⁶ 정태성⁷³ 정희경⁶⁵ 조남성⁷⁵
조상규⁶⁴ 조상희⁶⁷ 조용섭⁵³ 조원구⁶⁶
조은구⁵⁸ 조재환⁷⁶ 진성주⁶⁴ 진창갑⁵⁹
최 돈⁵⁷ 최대환⁶⁰ 최병로⁵⁹ 최석철⁶²
최재혁⁵³ 하국환⁵¹ 하지명⁴³ 한 환⁵⁶
한정복⁷⁰ 허도환⁶⁹ 허재경⁶¹ 현해관⁷¹
현해수⁶³ 현호경⁵¹ 홍덕화⁶⁴ 홍사회⁵¹
홍성웅⁶² 황하현⁵³

◇獸醫科大學

고의식⁶⁰ 구본수⁵⁷ 권종국⁵⁶ 권혁무⁸⁶
김건호⁷⁴ 김기동⁸² 김기원⁶¹ 김대중⁸⁵
김덕수⁶³ 김병재⁹³ 김본원⁶⁷ 김성호⁷⁷
김이섭⁵⁹ 김재권⁶⁶ 김준삼⁵⁹ 김태희⁶³
김홍수⁸⁵ 류광모⁶⁰ 박내정⁶⁷ 박노국⁶⁸
박만규⁶⁴ 박봉수⁹³ 박진일⁶⁴ 송기준⁶⁵
신현덕⁶⁴ 안석길⁵⁵ 안용호⁷⁵ 윤국로⁵⁹
이상우⁶⁹ 이우영⁶³ 이정현⁹⁵ 이준섭⁵⁸
이진용⁸³ 이충범⁶⁰ 이필수⁵⁸ 이현수⁹⁸
이희구⁶¹ 임옥빈⁶⁰ 임태빈⁷⁰ 장두환⁵⁴
정순욱⁸⁵ 정자영⁸⁸ 조남인⁶⁹ 조수식⁵⁶
조운상⁹¹ 조은재⁸⁴ 지성학⁵⁷ 최영식⁶⁵
최윤석⁵⁶ 한인식⁶⁸ 한홍율⁶³ 허정희⁶⁶
홍문표⁷⁰ 홍영선⁶³

◇藥學大學

강 건⁶⁶ 강 서⁶² 강정훈⁶⁷ 고정숙⁵⁷
공현표⁷⁴ 권현덕⁶¹ 김 식⁷² 김 영⁷⁷
김광규⁶⁶ 김민정⁹⁵ 김병근⁵⁷ 김석기⁶³
김성지⁹⁸ 김옥선⁵⁹ 김인석⁹⁷ 김정숙⁶⁹
김혜주⁸⁴ 김희진⁹² 박기숙⁹⁰ 박병국⁶³
박영배⁶⁷ 박충서⁴⁸ 배옥남⁹⁹ 배운도⁴¹
배운상⁵⁸ 서병기⁶⁶ 서성수⁵⁷ 서재근⁶³
성홍희⁴⁹ 손인자⁷³ 신복영⁷⁶ 안구원⁵⁸
엄주오⁵⁷ 오동환⁵⁷ 우숙희⁵⁴ 우웅렬⁶¹
우재안⁶¹ 유기선³⁷ 윤영남⁵² 윤영주⁹⁰
윤의섭⁵⁸ 이경식⁵⁶ 이석구⁶² 이순호⁸¹
이영남⁶⁸ 이용화⁶⁶ 이원재⁵⁷ 이인순⁷⁴
이재철⁷⁶ 이재현⁴⁸ 이준엽⁹⁹ 이태규⁵⁹
이태욱⁶⁷ 이형규⁷⁸ 임용원⁵⁶ 장정일⁷⁰
전계수⁶² 전창수⁷⁸ 전하창⁷¹ 정구충⁸⁰

정선희⁸⁶ 정인명⁵³ 정진협⁷⁵ 조균행⁷⁸
조남주⁵⁷ 조동희⁵⁶ 조영미⁹⁸ 조지웅⁵⁹
지상구⁵⁸ 최진근⁸¹ 최호강⁵⁶ 편승범⁵⁵
한승명⁷³ 허길우⁶⁸ 허병기⁷⁰ 홍순언⁶⁶
홍승령⁹⁹ 황광진⁸⁹

◇音樂大學

강덕원⁷³ 강수윤⁹⁰ 구위자⁷³ 권혁영⁷⁵
김경희⁷⁶ 김상원⁹¹ 김수혜⁹⁴ 김영률⁸⁰
김영목⁸¹ 김영숙⁵² 김영철⁶² 김완주⁹⁰
김원식⁵⁶ 김정숙⁷⁹ 김정택⁷⁴ 김중곤⁵⁸
김현경⁷¹ 김혜경⁸⁵ 김혜숙⁶⁹ 김홍승⁷⁷
나순향⁷² 남수이⁹² 문명자⁶⁸ 박미정⁷⁹
박정자⁶⁴ 박지선⁸⁸ 박희준⁶¹ 백승희⁷⁹
서경선⁶⁴ 신정애⁸¹ 신혜정⁶¹ 심선화⁷⁶
안종선⁸⁰ 안혜선⁸⁹ 어수희⁸⁹ 엄의경⁸⁵
오은숙⁷⁵ 원이경⁶¹ 유명희⁷⁶ 육영희⁸⁸
윤명순⁸³ 윤소영⁷⁸ 윤혜원⁸⁵ 이경미⁸⁵
이경희⁶⁷ 이경희⁸⁰ 이단렬⁶⁷ 이동남⁷⁰
이명희⁷² 이문경⁷⁴ 이영자⁵⁹ 이은경⁸⁵
이재영⁸⁴ 이종협⁶⁶ 이주연⁹³ 장원석⁹⁶
장희선⁹¹ 전소영⁸⁴ 전영혜⁶⁷ 정선거⁷⁷
정은숙⁷⁴ 조영임⁸⁸ 차세정⁹⁹ 최경혜⁶⁸
최구혜⁶⁵ 피호영⁸³ 한상우⁶² 현경실⁸⁰
홍민자⁶⁷ 홍영자⁵⁹ 홍종진⁷² 황광섭⁷¹

◇醫科大學

강영진⁸⁹ 강지숙⁸⁰ 구재철⁸⁴ 권준수⁸⁴
김갑득⁷⁶ 김경일⁶² 김계태⁷³ 김교명⁴⁷
김구상⁸² 김기덕⁷⁸ 김삼욱⁹⁸ 김영균⁸⁵
김영기⁷⁷ 김영휘⁸² 김용섭⁸⁴ 김용익⁷⁷
김용일⁶¹ 김용진⁷⁵ 김윤원⁶¹ 김주성⁸⁷
김주한⁷⁸ 김진국⁵⁸ 김필수⁸² 김현철⁸⁴
나명훈⁸³ 노경운⁸⁵ 도문홍⁸¹ 라기호⁹⁰
민병섭⁶⁰ 박경수⁸⁴ 박길선⁸³ 박동현⁷⁶
박승일⁸⁵ 박영석⁶⁶ 박종화⁸¹ 박찬일⁶⁹
박태식⁸⁴ 방덕환⁵⁹ 배진기⁵⁷ 변영찬⁸³
변종훈⁷⁵ 서교일⁸⁴ 서국희⁸⁵ 서유현⁷³
서정후⁵⁰ 선우성⁸⁸ 손영인⁵⁶ 송영주⁸⁰
신상만⁶⁷ 안규리⁶⁰ 양석진⁸⁵ 양운준⁸⁵
염명걸⁸¹ 오석환⁵¹ 오수정⁷² 오준호⁵¹
원세재⁵² 유세화⁷¹ 이광진⁶⁸ 이동철⁸⁴
이병훈⁸² 이상준⁶⁶ 이석환⁵⁹ 이선호⁵⁵
이수일⁷⁵ 아용진⁵⁰ 이율모⁷⁹ 이인섭⁷⁷
이재호⁸⁷ 이종구⁶² 이종국⁸⁷ 이종복⁸⁵
이종성⁶⁹ 이주원⁴⁸ 이혁표⁸⁸ 이현순⁷²
이홍기⁸¹ 이희자⁵⁵ 임현규⁸⁵ 임현명⁶⁰
전규식⁵⁶ 전대환⁵⁰ 전동수⁵⁰ 전병훈⁵²
전재석⁹¹ 정 민⁸¹ 정규철⁵⁵ 정윤재⁸¹
정중희⁸⁴ 정진호⁸⁴ 정희연⁸⁸ 조대운⁷⁷
조덕환⁴⁴ 조병주⁶² 조상록⁸⁴ 조세현⁷⁹
조승현⁴⁹ 조영기⁵⁶ 조우호⁸⁴ 차철환⁵³
채종일⁷⁶ 최진숙⁸⁴ 최창운⁸⁴ 최택규⁵⁰
한동환⁸⁵ 한영표⁵³ 홍성문⁵⁰ 홍순찬⁸²
홍원선⁷⁷ 홍정곤⁸¹ 홍창기⁶¹

◇齒科大學

강봉기⁷⁵ 강인희⁸³ 고백진⁸⁷ 고석호⁸⁸
고재승⁶⁷ 공만석⁷⁶ 김 무⁶⁸ 김경남⁸³
김공배⁶² 김광환⁷⁶ 김광희⁵⁶ 김규진⁸¹
김명동⁶⁷ 김명영⁸¹ 김명원⁵⁴ 김명진⁷⁷
김상철⁷⁹ 김성주⁸⁷ 김시웅⁸⁶ 김영훈⁶⁰
김유진⁷⁴ 김의배⁵⁶ 김인수⁹⁶ 김중훈⁸³
김주영⁶² 김진규⁶² 김창우⁸⁶ 김철희⁷⁵
김형배⁸⁴ 김홍구⁷⁴ 김화봉⁸³ 김효순⁷⁵
노인기⁸⁸ 류경희⁷⁵ 문혁수⁷⁷ 민기주⁸⁷
민병희⁸⁰ 박기호⁵⁸ 박성득⁵⁹ 박영길⁷⁰
박용연⁶¹ 박원기⁸⁹ 박인옥⁸⁹ 박준범⁶³
박진환⁶⁵ 박태원⁶² 박희운⁸⁴ 백기석⁷⁰
상기중⁵⁶ 서병무⁸⁸ 설태희⁴⁹ 손한기⁷³
손호현⁷⁶ 송 철⁸³ 송광수⁶⁶ 송광엽⁸¹
송철규⁷⁴ 심경숙⁸⁵ 안 박⁶⁶ 안병관⁵⁶
안상규⁶⁶ 안순찬⁹⁹ 양수정⁸⁹ 양춘모⁸¹
엄태섭⁶⁰ 여종환⁶⁰ 오계석⁵⁷ 오근성⁵⁰
오지연⁶⁹ 우건희⁷³ 우광균⁵⁶ 우상민⁶⁷

유기환⁷⁰ 유동수⁵⁰ 유주하⁸⁵ 윤대영⁵¹
윤도철⁷⁷ 유수한⁶¹ 윤영호⁸³ 이만선⁷²
이상대⁷⁴ 이상필⁷⁶ 이선재⁵⁹ 이선형⁶²
이성근⁷⁷ 이성복⁶⁸ 이성중⁷⁸ 이승은⁸⁹
이영목⁸⁴ 이용덕⁸⁷ 이장호⁸¹ 이재신⁷⁹
이재학⁷⁸ 이점식⁶⁸ 이준표⁶⁵ 이철민⁸⁵
이철용⁷⁷ 이충국⁷¹ 이희주⁷³ 임성삼⁶²
임형우⁶¹ 장명우⁸⁹ 전용구⁶⁶ 정성화⁵⁷
정영한⁷⁸ 정인환⁶⁶ 정재영⁷⁴ 정치영⁸²
조민선⁸⁸ 조영환⁷⁹ 조창홍⁶⁰ 지운택⁶²
차경석⁷⁹ 차영남⁷³ 최동률⁶⁹ 최성용⁷⁹
최연범⁸⁸ 최재기⁸³ 최경건⁸¹ 최진영⁸⁵
한영복⁶² 허준석⁸⁸ 허현도⁸¹ 홍금표⁵⁸
황성명⁵⁵ 황해순⁶²

◇大學院

김길곤⁷⁷ 김봉환⁸⁵ 김성택⁸⁷ 김신일⁶⁵
김진수⁸⁵ 김현섭⁸⁵ 김희수⁸⁵ 박병인⁸⁸
박익환⁷⁸ 박종렬⁷¹ 박혜식⁶² 방인태⁸⁴
백대균⁸² 변지영⁹³ 성기수⁵⁸ 손영목⁷⁷
송상호⁹³ 양일석⁷⁵ 양희석⁸⁶ 오인환⁶⁹
유연철⁸¹ 유형종⁸⁶ 윤보국⁷⁶ 이명호⁷⁸
이상목⁸⁴ 이영하⁸⁶ 이용욱⁷⁸ 임경순⁶¹
임병민⁸² 장병기⁷⁰ 장상용⁶⁵ 정원박⁸¹
정혜진⁹⁴ 조현래⁷⁵ 진선주⁶⁹ 최 진⁸⁰
하계파⁸⁶ 황인희⁸²

◇經營大學院

강신종⁹¹ 박철우⁹⁶ 설무근⁹⁰ 유민철⁷²
이영희⁶⁷ 이진원⁶⁹ 장만기⁶⁸ 정일채⁶⁹

◇教育大學院

김기태⁷¹ 박광희⁶⁶ 조낙현⁷⁷ 현덕규⁷⁶
홍순강⁷³

◇保健大學院

김경숙⁷⁹ 김민규⁹⁹ 김봉재⁹⁷ 김순덕⁸³
김유정⁹⁹ 김정수⁸¹ 민병찬⁷⁷ 박형언⁹⁰
서석관⁶⁸ 오장수⁹¹ 무우현⁶² 윤인재⁶⁵
이민희⁷⁶ 이송권⁷³ 이정지⁷⁶ 이종현⁶⁸
정 환⁸³ 정문호⁶⁸ 조순희⁸¹ 한인규⁹⁹

◇司法大學院

송정호⁶⁸ 정덕장⁷²

◇新聞大學院

김민남⁷⁸ 김숙현⁷⁴ 김우룡⁷³ 목정균⁷⁵
송경섭⁷⁴ 유종수⁷³ 윤임술⁶⁹ 이준우⁷⁵
하정조⁷⁵

◇行政大學院

고윤환⁶⁶ 김경엽⁶⁵ 김광영⁸¹ 김승정⁶⁸
김준봉⁶⁵ 김학주⁷⁴ 서일수⁶⁹ 송재희⁸⁴
오윤진⁶⁵ 유동재⁹⁹ 이준우⁷³ 이재호⁷⁰
임종섭⁷⁷ 정재춘⁷³ 허성두⁷³ 홍석철⁶⁴

◇環境大學院

구길본⁶⁸ 김경윤⁶⁵ 김동일⁸² 김배원⁹³
김재운⁵⁵ 김혜전⁸⁰ 배우근⁸¹ 송장복⁷⁹
윤용희⁸⁵ 윤종식⁹¹ 이만형⁸³ 이종일⁸⁵
이춘택⁷¹ 임상신⁹⁷ 정영선⁷⁵ 정우철⁹³
조대식⁹⁴ 진영훈⁸² 최강림⁹³

◇최고경영자과정

강병윤⁹¹ 권석우¹⁵ 기세만⁴⁶ 김광영²⁵
김규성⁴⁴ 김기용²⁸ 김만식⁴⁷ 김병오³⁶
김상선⁴⁷ 김상호³⁹ 김성섭⁴⁷ 김시학⁴⁰
김영조²⁵ 김용집⁴¹ 김응열²⁵ 김재철²⁹
김종남⁴⁶ 김종선⁴⁸ 김준철⁴⁴ 김진형⁴³
김철운³³ 김태진⁴⁸ 김현수⁴⁵ 김흥기⁴⁵
나종억⁴⁸ 남종철⁴⁸ 마용도⁴⁸ 맹건영¹²
문영일²⁶ 민경서⁴⁸ 박달용⁴ 박상규³¹
박세환³⁹ 박원홍⁴⁰ 박재상⁶ 박준근⁴⁵
박해주¹⁸ 박현규¹⁰ 박희식³⁶ 방상우³¹
변규섭³ 서 구⁴¹ 서재희²⁵ 서준영²⁰

손희주¹³ 송운한⁴¹ 신동식²⁶ 신동오²⁸
신종규⁴ 안종표³⁶ 엄상호¹⁸ 오기식⁴⁶
오동빈²² 오무영³⁷ 이상우¹⁸ 우종보⁴⁰
유도재¹ 유상남²⁴ 유재열³⁵ 유재우⁴⁷
유정갑³³ 윤석금²⁷ 윤승혁⁴⁸ 윤종수²³
이균범¹⁶ 이동대³⁴ 이명복⁴ 이상복⁴¹
이상영⁴¹ 이석준²¹ 이성길³⁴ 이성연⁴
이세락⁴⁵ 이소동⁶ 이원구⁴⁸ 이원호⁴³
이인정³⁵ 이장국⁴² 이중광⁴² 이중효²⁷
이진선³⁶ 이태섭⁵ 이형팔³⁸ 임진출³⁵
장명웅⁴⁰ 장원리⁴⁸ 정근화³⁸ 정덕상³⁵
정장호¹⁴ 정필도² 정홍기³⁰ 조남준⁴³
조시남³⁹ 주상길³⁸ 주영복¹⁴ 진성섭¹⁰
천용택³¹ 최재선⁹ 최종욱¹⁵ 최희종⁴²
허경욱⁴⁶ 홍연석⁶ 황규성³⁷ 황병주¹⁵

◇최고산업전략과정

강호성¹⁵ 고희석²¹ 권영원²² 김관수⁹
김광삼¹⁹ 김기중²² 김명현²² 김문웅⁴
김복근¹⁶ 김상화⁸ 김선경¹² 김승길¹⁰
김인철²² 김일수¹⁴ 김정원¹⁸ 김종목⁶
김종훈¹⁵ 김창희¹⁹ 김현대¹⁰ 김후곤¹⁷
노의현²¹ 류복석²² 마재관²² 박경부²⁰
박기상¹³ 박양신²⁰ 박을식¹⁴ 박장춘¹⁸
박정오¹⁶ 박평서¹¹ 손성기⁸ 신강열⁹
신길웅¹⁰ 신종규² 심종덕¹⁵ 양 명⁹
오세희² 오시덕¹⁷ 옥남선⁶ 윤경현²¹
이강덕¹⁷ 이동건¹⁴ 이상원¹⁹ 이신언⁷
이영우²² 이종호¹⁹ 이창범²² 이천우¹³
임재룡¹⁷ 장병우¹⁷ 장상길²² 장철호²²
장희전²⁰ 전재홍¹⁷ 정상렬²² 조상국²²
채우석²² 최문규² 최성남¹¹ 최용길²²
최정남²² 한상규²¹ 함돈식¹⁸ 함학주¹⁰
황이남²²

◇국가정책과정

강신출⁴⁹ 강희간⁴⁴ 구여희³ 권영배⁴⁰
김 집¹⁸ 김경래¹⁸ 김경수⁴ 김기영⁴⁹
김만기⁷ 김병문²³ 김병철⁴⁵ 김상민⁴⁹
김상태⁴⁵ 김성정⁴⁹ 김순배⁴⁶ 김영일⁴¹
김용상²² 김의준⁴⁵ 김정숙²⁷ 김종민⁴⁵
김종웅³⁹ 김철호⁴⁶ 김형성⁴² 김형준⁴⁷
김황봉⁴ 노태국¹³ 림동섭⁹ 명영남²³
민경자⁴³ 민병섭³² 박기억¹⁵ 박기철³⁹
박명규⁴⁰ 박명환³ 박신광⁴⁰ 박영순⁴³
박용호⁴⁸ 백운열⁴⁹ 서정권² 신상훈⁴⁷
신현대³¹ 심기섭⁴⁹ 안신환³⁴ 안영기³⁰
양진석⁴² 엄길용¹¹ 유성종³³ 이갑진³⁵
이명원³⁵ 이법준³ 이복승⁴⁶ 이상영⁴⁰

이영수⁴⁸ 이영숙¹⁷ 이유형³⁹ 이재태³⁵
이정주⁴⁷ 이종성³³ 이창남³⁷ 이희수<